교육연합신문

2021년 10월 6일 (수) **제354호**

EduYonhap.com

구독 배달안내: 02-541-2000

"중학교 형님이 책을 읽어 주어요" ▶5면

인천경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이현주)은 유·초·중 통합학교의 특성을 살려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9월 14일, 16일 이틀간 '중학교 형님이 책을 읽어 주어요' 캠페인을 실시했다. 중학교 독서동아리 학생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즐거운 상상, 미래를 마주하다' ▶8면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원장 최명렬)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1. 창의융합 미래교육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즐거운 상상, 미래를 마주하다!'의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원들이 행복한 전남교원연수원 ▶16면

1995년 9월 1일 개원한 전라남도교육연수원은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연수기관들이 참여하는 전남교육연수기관협의회를 바탕으로 전남형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출발했다. 전라남도교육연수원·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

국민 학습기회 늘리고 취약계층 안전 지킨다

과기정통부, '9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 비대면 산업육성 분야 3개사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로 아이스크림에듀, 유비온, 오파스넷 등 비대면 산업육성 분야 우수기업 3개사를 선정했다.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는 디지털 뉴딜의 성과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디지털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중 성과가 우수하고 국민 체감도와 파급효과가 높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매달 선정·발표하고 있다.

이번 우수사례에는 초·중·고·대학의 맞춤형 학습서비스와 국민들의 지속적인 평생학습 지원 등 교육환경을 디지털화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기업들이 뽑혔다.

먼저 아이스크림에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대규모 학습자 성취수준 측정 데이터 셋을 구축하고, '5세대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에서 학습자 맞춤형 영어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스마트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국내 380여개 초·중·고 등에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대면 교육을 통한 학습격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비온은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과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해 18개 교육기관 및 120여 곳 대학에 클라우드 기반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들의 평생학습시스템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학습관리시스템 임대지원 사업'으로 52개 직업훈련기관 훈련생의 취업·직무능력 교육을 지원하는 등 집체 훈련기관의 비대면 교육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오파스넷은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구축사업'으로 2023년까지 30만 독거노인 가구에 응급상황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사물인터넷 활용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으로 연내 양로원·장애인 복지시설 등 300여 곳에 개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윤구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전통적인 교육·돌봄 분야 기업들이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 변화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혁신적인 비대면 서비스의 활용·확산을 지원하고, 기업들에게 성장과 도약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풀잎문학상 및 북한강문학상 수상자 발표

'풀잎문학상' 등단 1년차 이상 문예지 발표 · 시집 기준으로 선정

코로나19의 냉혹한 현실에도 2021년 제18회 풀잎문학상과 제11회 북한강문학상이 발표됐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작가로서 예술인 활동 증명 서류를 받은 예술인 작가 중에 '풀잎문학상' 등단 1년차 이상 문예지에 발표와 시집을 기준으로 각 수상자를 선정했다.

제11회 북한강문학상 본상에는 정순옥 시인이 선정됐다.

제11회 북한강문학상 심사위원장은 박효석 시인(한국문인협회 고문)이 맡았고, 심사위원은 김후란(문학의집 서울 이사장, 시인), 김용언 시인(전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장), 마경덕 시인(시창작 강사) 손근호 시인(시창작 강사), 조성연 수필작가, 조규수 시인(현 한국현대시인협회 총사무국장)이 맡았다.

◇제11회 북한강문학상

'북한강문학비'에 헌시를 한 고 황금찬 시인의 '별이 뜨는 강마을에' 작품이 '북한강문학비'에 새겨져 있고, 이 비에 새겨진 황금찬 시인의 헌시와 가장 유사한 문학 활동을 하고 북한강 유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학적 가치를 빛내고자 '북한강문학비' 건립을 기념해 북한강문학상은 순수문학과 작품성으로 선정됐다.

수상자 기준은 기성 문인으로서 한국에서 황금찬 시인의 시와 문학정신이 가장 비슷한 문인의 시집과 작품집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지역문학계 문학발전에 노고를 한 기성 문인에게 주는 상이다.

제18회 풀잎문학상 시 부문 대상 이춘희 김유명 최수일 시인, 시 부문 본상 하종일 전병길 송용희 오수관 시인, 소설 부문 본상 최이곤 작가가 선정됐다.

제18회 풀잎문학상추진위원회 심사위원장은 박효석 시인(한국현대시인협회 고문)이 맡았고, 심사위원은 김후란(문학의집 서울 이사장, 시인), 김용언 시인(전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장), 마경덕 시인(시창작 강사), 손근호 시인(시창작 강사), 조규수(한국현대시인협회 총사무국장)이 맡았다.

◇제18회 풀잎문학상

북한강 유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학적 가치를 빛내고 '북한강문학비' 건립을 기념해 순수문학과 작품성으로 선정하였으며, 수상자 기준은 기성 문인으로서 시집과 작품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에서 풀잎처럼 청초하고 지역문학계 문학발전에 노고를 한 기성 문인에게 주는 상이다.

이 상은 2003년 경남 중산리 '천상병문학제'에서 '풀잎문학상'이 제정되어 올해 제18회로 권위 있는 문학상이다.

2021년 제11회 '북한강문학제'에서 매년 문학상 발표와 시상식에 관련된 상이 '북한강문학상'과 '풀잎문학상'이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학인들의 열정을 식힐 수는 없었다. 이에 각 부문과 장르 심사와 작가의 공헌도에 맞추어 공평하게 문학상 선정을 하였다고 전했다.

제11회 북한강문학상 수상자
〈시 부문 본상〉
정순옥 / 나는 엄마였다

제18회 풀잎문학상 수상자
〈시 부문 대상〉
이춘희 / 물의 뿌리
김유명 / 사랑이 가난하던 날
최수일 / 논밥

〈시 부문 본상〉
하종일 / 김화 가는 길
전병길 / 청춘보다 아름다워
송용희 / 메밀꽃
오수관 / 꽃다지

〈소설 부문 본상〉
최이곤 / 귀향

박한석 기자
phs@eduyonhap.com

"더욱 맑아진 산정천 기대해요"

장성 진원초, EM 흙공으로 깨끗한 환경 만들기

진원초등학교(교장 한연숙)는 10월 1일 학교사랑의 날을 맞아 'EM 흙공으로 깨끗한 환경 만들기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다가올 2022년 학교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전교생이 직접 EM 활성액과 발효촉진제를 황토에 섞어 야구공 크기의 흙공 1000여개를 만들어 3주 동안 발효시킨 후 진원초 근처 산정천에 흙공을 던졌다. EM 흙공은 수질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균을 이용해 하천바닥에 퇴적된 오염물질 제거하게 되는데 수질정화와 악취 해소 역할을 함으로써 생태계를 회복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원초 학생들은 EM 흙공을 직접 반죽하고 만들며 발효과정을 3주 동안 살피면서 생태의 이해를 높였다.

행사에 참여한 진원초 6학년 박승민 학생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체험을 해보니 환경의 소중함을 더 잘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직접 만든 EM 흙공으로 더욱 맑아지고 깨끗해진 산정천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진원 예솔혜윰 학생회가 주관하여 학교 주변을 돌며 환경정화 활동과 학교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행사를 진행했고 학교 교가 및 진원초 로고송 부르기, 학교 교표 및 진원초 캐릭터 찐이 그리기, 학교 자랑 UCC 영상 제작 등 학교 사랑에 대한 자긍심과 소중함을 기르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학생회를 담당하고 있는 정겨운 교사는 "우리학교와 학생들에게 뜻깊은 99주년 행사가 되어 기쁘다. 학생들의 추억이 깃든 정든 학교, 정든 마을, 정든 고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연숙 교장은 "EM 흙공은 수십 종의 유용한 미생물이 들어있어 하천의 토양 복원, 악취제거 등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적으로 산정천의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깨끗한 학교환경과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상운 기자 2580news@daum.net

‘성범죄자 알림e’ 위치 정확도 높인다

여성가족부-법무부-경찰청, 민간지도 활용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주거지 변동 즉시 반영

앞으로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지도를 현행화해 주기가 빠른 민간업체 지도로 바꾸고,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전자감독 대상일 경우 주거지 변동 즉시 반영키로 했다.

또 고위험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대한 상·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해 신상정보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는 엄벌 조치한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28일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업무는 3개 부처(청)가 업무를 분담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각 부처(청)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웹사이트(www.sexoffender.go.kr)와 앱을 통해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8개 항목 중 정확한 ‘실제 거주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8개 항목은 성명, 나이, 주소(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다.

그동안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주소신고 때 실제 거주지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경찰의 점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등 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의 사진정보 현행화 여부를 늘 파악해 즉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성범죄자의 위치 표출 정확성을 높이도록 민간지도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성범죄자 주거지 위치정보 서비스에 활용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경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제도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전자감독 대상자를 상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주거지 변경을 인지한 경우 직접 즉시 반영하고, 이를 경찰과 여성가족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지한 주소정보는 경찰에 먼저 통보해 현장확인을 마친 후 반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위치정보 기반으로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주거지는 법무부가 인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하기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법무부에 보내던 정보전달 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경찰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신청서 접수 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 심의 중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이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개편해 경찰이 수집한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신속하게 시스템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법무부로부터 통보 받은 즉시 대상자 직접 대면 등으로 변경 여부를 확인해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는 엄벌하는 한편, 확인결과를 법무부와 여가부에도 즉시 통보해 공개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공개·고지 대상자 등 고위험군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일제 점검 등으로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 등 관리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 결과로 향후 전자감독 대상 성범죄자의 실거주 정보의 현행화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정확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호 교수, ‘선거이벤트 PD’ 양성과정 개설

국제한류문화 원격평생교육원, 실전 선거전문가 ·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육성 목표

우리나라 이벤트 이론 창시자 한국이벤트개발원 조달호 원장이 ‘정치선전 전문가’, ‘선거 책사’로의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32년 전, 1989년 이벤트스쿨을 개설해 이벤트 돌풍을 만들고 명동축제, 꽃박람회, 서울대자선공연, 메밀꽃축제, 농수축산박람회, 마이클잭슨 초청공연 등 240여 건의 크고 작은 이벤트를 연출해 한류 열풍의 준거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조달호 교수이다.

조 교수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내년 3월 9일 대선과 6월 1일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겨냥해 한류문화교육원(국제한류문화원격 평생교육원)의 정치선전 전문가를 양성하는 ‘선거이벤트PD 지도사’ 과정 주임교수로 변신해 선거문화를 바꿀 선거전문가 육성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994년 “누구든지 이벤트를 잘 만들면 개인도 나라도 부강해질 수 있다”는 이벤트 부국론의 관점과 이벤트를 통한 문화 혁명을 주창한 이벤트 창작서 ‘창조적인 이벤트전략·커뮤니케이션북스’를 집필한 조 교수가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개설한 최단기 종합실전 선거전문가 육성 코스를 개설했다.

조 교수가 개설한 ‘선거이벤트 PD 지도사’ 육성과정은 국회의원이나 대선캠프 참모, 지자체 단체장, 지방의원, 선거출마 예정자, 미래 정치인 등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크게 활약하고 낙후된 선거문화를 혁신코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입교할 수 있다.

최단기간에 스마트폰으로 ‘선거학총론’, ‘정치커뮤니케이션 기법’, ‘선거지도 작성요령’, ‘선거전략서 작성법’, ‘법정홍보물 제작론’, ‘미디어 대책’, ‘특수활동’ 등

선거를 장악하고 후보자를 승자로 만드는 비결과 원리를 48개의 영상강좌를 통해 완벽하게 터득해 컨버전스 시대 최고 유망직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마케팅이나 한류산업, 엔터테인먼트, 국제관계에도 유용한 프로그램이며, 실전사례를 중심으로 현실정치 맞춤형 ‘선거전략 완벽가이드’ 코스로서, 이수자는 ‘3급지도사 자격’을 취득해 선거현장에 투입되어 활약이 가능하다.

1991년 정치광고연구원을 개설해 선거전략 세미나를 주관하고 다양한 선거전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는 조달호 교수가 주임교수를 맡아 진행하는 ‘선거이벤트 PD 지도사’ 과정은 ▲전략에서 앞서야 승리할 수 있다 ▲선거법을 손안에 넣고 판세를 장악하는 방법 ▲권력은 총구에서, 표는 투표소에서 ▲테마 이슈 타겟 공약, 단계별 전략 ▲명함, 사진,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공보, 벽보 ▲이기는 선거운동, 스토리텔러가 되어라! ▲전쟁준비, 홈, 신문광고, 방송연설 ▲로고송, 홍보영상, 차량유세, 퍼블리시티, 차별화 전략 등 실전위주의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어 누구든지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다.

교육과정 이수자는 전원 ‘선거이벤트 PD 3급’ 자격을 취득하고 희망자는 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전략단에 편성되어 선거현장에 곧바로 투입되어 다가오는 선거전에서도 큰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적 영역이 점점 확장되는 추세에 맞춰 ‘선거이벤트 PD 지도사’는 정치선전뿐 아니라 문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퓨전 크로스오버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 교수는 본과정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노래를 잘 부른다고 스타가 되고, 유명가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유명가수가 되려면 노래도 잘 불러야 되겠지만, 유능한 매니저를 만나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타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만들어지는 것처럼 낙후된 대한민국의 선거풍토와 정치를 바꾸려면 스타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선거는 모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복합체로 매우 복잡하지만,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두 달간 한 주에 6강좌씩, 8주간 48강좌를 들으면 웬만한 선거는 꿰뚫고, 이수 후에는 정치인으로 또는 선거와 소통의 전문가로 크게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강 희망자는 홈페이지(http://kicolc.kr)로 접속하거나 국제한류문화 원격평생교육원(교학처: 02) 717-2775)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선 기자 kbs@

▣ 조달호 교수
◇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대외협력위원장
◇ 前경희대 교수, 세계평화아카데미 교수
◇ 충청향우회중앙회 부총재
◇ 광고, PR, 언론, 이벤트, 마케팅, 한류, 의료관광, 축제 전문가

코리아연구원, 미래세대 통일공감 토론회 개최

통일 인식 · 한반도 평화에 대한 청년세대 인식 확인

통일 인식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청년세대 인식 확인 및 변화 가능성을 스스로 찾고 발견해 나가는 미래세대 통일공감 토론회가 지난 9월 25일 현장과 온라인(줌)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코리아연구원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미래세대 통일공감 UP’ 프로젝트는 김태우 사무차장(UN 세계평화의 날 한국조직위원회)의 사회로 김하은(국민대학교 학생), 권혁인(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 최종원(세종대학교 학생), 서은진(숭실대학교 학생), 유효준(국민대학교 학생), 김서안(숙명여자대학교 학생), 김지완(EY 한영), 윤창원(서울디지털대 교수)의 발제 토론으로 진행됐다.

권혁인 학생은 “정책은 시대와 가치관의 변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 상황을 보면 다음 세대 통일 주역인 청년 세대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공감을 줄이지 않으면 얼마 전 새로 당선된 역대 최연소 야당 대표가 말한 ‘통일부 폐지론’이 우리 세대에는 현실이 되는 게 아닐까? 분단 70년, 가치관의 차이와 청년 참가의 부재가 낳은 2030 세대의 통일에 관한 괴리감은 현 통일 정책에 대한 ‘공감 없음’을 넘어 아예 무관심을 향해가고 있다. 하루빨리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청년 참가의 장 확대와 의무교육기간 중의 관련 경험을 비롯하여 다음 세대에는 진영논리를 넘은 통일에 대한 사회적 대담론 형성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하은 학생은 “지속적으로 통일에 대한 방향 및 정책 수립에 있어, 지속적으로 통일 실현을 위한 노력과 통일 관련한 의제에 대해 청년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게 하고 청년세대의 참여를 도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다.

토론회를 지켜본 코리아연구원 변진흥 원장은 “청년세대 통일공감정책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접근이 원활해지기 위해서 청년들의 입장에서 통일을 바라보고 참여시키는 네트워크 확산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김병선 기자 kbs@

교육연합신문 기사제보: news@eduyonhap.com
발행·편집인 한승균
우 135-95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3, 306호(충무로 4가)
구독문의/대표번호 02-541-2000 팩스 02-3444-0119
인천본부 032-429-1000 충남지사 1577-2036 경남지사 055-242-8921
영남본부 054-273-3336 미주본부 443-621-2625
호남본부 0505-629-3366 FAX 0505-619-3366 전북지사 063-272-9090
2009년 1월 22일 등록번호 서울 다 1048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소트램 424억원 투입 2023년까지 상용화

전문기업·대학 등 참여 핵심 기술 확보… 실증사업 착수 친환경 수출상품 육성

정부가 차세대 친환경 도시 교통 수단으로 주목받는 수소트램을 2023년까지 상용화하기 위해 대규모 실증 사업에 들어갔다.

수소트램 조기 상용화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 수출상품으로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2023년까지 총 사업비 424억원(정부 282억원)을 투자해 수소트램을 상용화하는 수소전기트램실증사업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소트램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세계최고 수준의 수소차 기술력을 수소트램용 전용부품 개발에 활용하고, 지자체(울산시)가 보유한 유휴선로를 활용해 실주행 및 검증할 예정이다.

수소트램은 전철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교통수단으로 차량 내 탑재된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열차운행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해 전철과 달리 전력설비 등 외부동력공급 인프라가 필요 없어 상대적으로 건설비가 저렴하다.

또한, 배터리방식의 전기트램은 주행거리가 길어질수록 고중량 및 고가인 배터리탑재량도 증가해 무게·부피와 생산비용도 상승하고 충전시간도 긴 단점이 있어 장거리 주행이 필요하거나 주행빈도가 높은 경우 수소트램이 전기트램에 비해 강점이 있다.

수소트램은 수소차 대비 고내구성이 필요한 고난도 분야로 글로벌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로 확고한 선도기업이 없으며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이 수소트램 상용화를 위한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보유한 세계최고 수준의 수소차 기술력과 경험을 활용하면 단기간에 수소트램을 상용화하고 글로벌 친환경열차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넥쏘용 수소연료전지(95kW) 4개에 해당하는 380kW급 수소트램을 상용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2023년말까지 4대분야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수소트램 시스템 통합·검증기술 분야는 철도전문기업인 현대로템이 주관하고 맥시스(모터), 코아칩스(센서), 푸름케이디(제동), 에스제이스틸(차체), 에이엔엠메카텍(냉각) 등 중소철도부품업계 5곳도 함께 참여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수소열차분야에 도전한다.

내년까지 수소트램에 탑재할 모터, 제동장치 등 부품을 제작하고 2023년에는 제작된 부품을 통합해 수소트램 실차를 제작하고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수소트램전용 수소연료전지 및 요소부품기술 분야는 수소차 부품 개조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관하고 지엠비코리아(연료전지 열관리), 에티스(연료전지 제어), 동희산업(수소저장용기), 화승알앤에이(플랙서블 튜브), 씨에스에너텍(배터리), 한양대·서강대(설계) 등 수소차부품 전문기업과 대학 7곳이 참여한다.

수소트램 기술기준 및 주행성능 평가기술 분야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하고, 이 사업이 수출을 염두에 둔 프로젝트인 만큼 유럽안전성 평가기관인 티유브이슈드(TUV SUD)의 한국지사도 참여한다. 내년 부품단위, 2023년 실차단위로 국내 및 유럽의 열차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수소트램 실주행 환경 실증 및 운영기술 분야는 울산TP가 주관하고 코비즈(비즈니스모델 발굴), 범한퓨얼셀(수소충전소 구축), 가스안전연구원(수소충전소 안전검증), 울산대(수소트램 최적운행패턴) 등 인프라·안전·분석기관 4곳이 참여한다.

내년까지 수소트램용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2023년부터 울산시 유휴선로(울산역↔울산항)에서 누적 2500km이상 주행하면서 연비 등을 고려한 최적주행패턴을 검증할 계획이다.

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부터 수소트램 양산을 시작하고 국내·외 판로를 적극 개척해나갈 예정이다. 국내는 울산, 동탄 등 신규 도시철도사업 계획이 있는 지자체와 수소트램 적용을 우선 협의해 나가고, 유럽·동남아 등 트램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판로를 개척해나갈 예정이다.

자살예방칼럼

생명, 그 소중한 가치를 위한 종교인 선언 ②

한국종교인연대 상임대표 김대선 교무

소중한 생명 가치를 세우고 일깨우는 것은 종교의 본분이자 사명입니다. 2019년 6.18 대참회 이후 매년 9월 10일은 UN이 정하는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가 생명존중기간을 정하여 자살예방활동을 산발적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자살이 많은 3월에 종교, 시민사회, 학계 등이 참여한 생명존중의 날을 선포하자 한후, 최근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19로 20세 청년, 40세 여성의 자살이 증진됨에 따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지난 3월 25일 생명존중의 날을 선포하였다. 이날 생명존중, 생명사랑, 생명지킴이를 목적으로 활동한 30여 단체로 구성된 한국생명운동연대(상임대표 조성철)와 한국종교인연대가 공동 주최하여 자살률을 낮추고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하였다.

2021년 3월 25일(삶이오)에 생명! 그 존엄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생명존중 선언문은 "생명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이며, 한 사람의 생명은 전 지구보다 무겁고 또 귀중하고 엄숙한 것이며,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그 무엇보다 엄중히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생명을 키우고 열매 맺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생명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생명의 기쁨이 이 땅에 만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생명은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은 하늘이 부여한 지고한 사명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면, 16년째 OECD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와 상관없는 남의 일처럼 외면해 왔습니다.

우리는 한 해 1만 3천면이 넘는 사람들이 한없이 귀중한 생을 포기하는 상황을 방관해 왔습니다. 우리는 자살을 개인의 선택, 관행과 교리의 책임으로 미루었습니다.

우리는 자살 유가족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는 데 게을렀습니다. 우리는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외로운 이웃을 돌보는 사랑의 실천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에 미흡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머리 숙여 참회하고 생명존중 선업과 함께 생명존중 실천 행동가로 다시 나서고자 합니다.

부디 오늘의 선언과 출발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생명운동을 촉발시키고,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설 것을 선언합시다!

자살은 더 이상 안됩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생명 가치는 훼손돼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생기있고, 밀착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힘없고, 병들고, 가난하고, 외로운 이웃을 적극적으로 돌봄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공동체 내에 생명운동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살 유가족들의 아픔을 보듬고, 애도와 회복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우리는 강연, 설교, 설법, 강론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일깨우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존중 서약캠페인과 생명문화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활동하겠습니다.

우리는 갈등과 분열 대신에 평화와 상호존중, 상생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5일(삶이오) 생명존중 선언문 전문게재)

지난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은 생명운동 릴레이 포럼을 실시할 예정이다.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이며, 한 사람의 생명은 전 지구보다 무겁고 또 귀중하고도 엄숙한 것이며,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생명 가치를 세우고 일깨우는 것은 종교의 본분이자 사명입니다. 종교의 생명은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생명, 우리 모두가 존중하고 사랑하여야 할 영원한 은혜입니다!

음성고, 교내서 벌어진 행복 이벤트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간 교내 작은 음악회 개최

음성고등학교(교장 최시선)는 지난달 24일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 교내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교내 음악 동아리를 중심으로 음악·음향·무대 설치·사회자 등 다양한 진로희망 분야에 따라 학생들이 직접 음악회를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은 준비하고 기획한 노래·연주·랩·춤 등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으며 퀴즈·개인기·최고의 연주팀 선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호응을 높였다.

음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년별 공연을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학생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최시선 교장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낭만의 정취를 느끼며 생활 속 심미적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이 마련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도서 기자 gds@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경진대회

화순만연초 김태균 학생 우수상

화순만연초등학교(교장 김미숙) 6학년 4반에 재학 중인 김태균 학생은 9월 7일 국립특수교육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1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이하 e페스티벌)-정보경진대회 특수학급 발달장애 아래한글(ITQ)부문'에 참가하여 우수상(국립특수교육원장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 행사는 2005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전국 특수교육대상학생, 지도교사 등 1,5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정보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대회 방식에 따라 온라인으로 정보경진대회와 e스포츠대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김태균 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장애를 극복하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임은 물론, 곁에서 도와준 주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1학년 때부터 꾸준히 배워온 방과후교실 컴퓨터부 배광미 선생의 가르침이 큰 뒷받침이 되었다고 한다.

김태균 학생은 "내가 좋아하는 컴퓨터로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더 큰 상을 받고 싶어요"라며 소감을 전했고, 컴퓨터 방과후 강사 배광미 선생도 "태균이가 1학년 때부터 꾸준히 배워왔고, 배운 내용을 가정에서나 학습도움반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아요. 처음으로 가르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정말 보람 있습니다"라며 함께 기뻐했다.

LASER 레이져타운 TOWN

고객과 함께 하는 사업 파트너로서 늘 곁에 있겠습니다

01 프린팅 파트너의 역할
- 각종 사무기기의 유지보수 및 A/S
- 전산소모품 및 복사용지의 판매
- 액상분필

02 조달담당 파트너의 역할
- 각종 특별실의 전산조달담당
- 프로젝터 및 영상기기, 음향 설비공사
- 전자칠판, 문서세단기

03 불용품 처리 파트너의 역할
- 조달물품의 불용처리 일체담당
- 각종 서류 처리까지 말끔히 해결

불용컴퓨터 및 중고컴퓨터 전문 수거사업은 고객의 기존 정보누출을 방지하고 전자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전산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의한 재활용 가능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21세기 환경산업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원이 부족하고 폐자재원의 수거율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선 폐자재에 대한 최대한 재활용화를 통해 부족한 나라의 자원을 절약하는데 미약하나마 힘이 되고자 합니다.

고객만족 최상의 서비스 LASER 레이져타운 TOWN 레이져타운 불용물품 관리전환 전문 Tel.(032)462-3550 Fax.(032)446-2308

학교건축 변화 시도로 교육공간 다양화 선도

서울교육청,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서울신길중' 최우수상 수상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9월 15일 국토교통부 주관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시상식에서 새로운 학교 공간구조유형인 신길중학교(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신축사업이 최우수상(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1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품격 높은 디자인의 공공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건축물에 부여하는 상으로 학교 건물로는 유일하게 신길중학교가 수상했다.

그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 환경 개선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자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 왔고 그 결과 이번 '신길중학교' 수상을 비롯하여 2018년도 이후부터 4년간 학교 공간 변화와 관련하여 총 12회의 건축 관련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기존 학교들은 관리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경직되고 획일적인 교실의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이 학교들은 학생 중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설계되고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해 학생 및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전체를 꿈담교실로 설계한 서울하늘숲초의 경우 학생 성장 유형에 따라 3가지 유형의 교실을 조성했으며, 공항고는 실내공간을 아트리움 형식으로 적용하고 계단으로 공동공간을 연결하여 학생들이 교류하도록 설계되었고, 신길중은 획일적이고 거대한 고층아파트 숲에서 박공지붕을 적용한 외관 디자인으로 포근한 집과 같은 느낌을 살려 학생에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생활이 가능하도록 조성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수상의 영예를 안은 학교뿐 아니라 마곡하늬중, 서울나래학교 등 학교 전체 혹은 건물 한 동 전체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면서 현재의 획일화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학교 공간 변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각종 건축상을 수상하고 있는 공항고, 신길중, 서울서진학교(특수학교), 서울하늘숲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완성되었을 때 구현될 미래학교 모습의 모델하우스 성격을 띠고 있는 바, 이처럼 교육공간의 다양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었던 서울시교육청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한 단계 높은 친환경 생태 공간,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학습 환경, 다양하고 새로운 첨단학습공간으로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기후위기 시대의 탄소배출을 제로화할 계획이다.

또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초·중·고 학교급별에 따라 교실 크기를 확대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학교에 도입되지 않았던 감염병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학습결손 극복 총력

보충지도 필요한 학생 '초등 점프업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담임(교과전담)교사가 보충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초등 점프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등 점프업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중 성적이 중간층인 학생들의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담임추천이나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맞춤형 교과 보충학습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에 발표된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정책연구결과는 최근 중위권이 줄고 학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에서는 9월 중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보충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별도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집중지도도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 점프업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장기화된 등교·원격수업 병행으로 무너진 중간층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자신감 및 자기주도 학습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다.

고양시, 제2회 고양평화의료포럼 개최

남북 보건의료협력 모델 '한반도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 설립 제시

경기도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30일 고양 킨텍스에서 제2회 '고양평화의료포럼'을 개최했다.

'평화와 교류의 시대를 여는 보건의료협력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고양시, 국립암센터, 고양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했다.

이번 포럼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영상축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축전을 보내왔으며 이용우, 신현영, 한준호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포럼 개최를 축하했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통해 지역 내 병원과 보건의료 관련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 시민이 참여했다.

포럼 1부 기조연설에서는 ▲통일의료를 위한 남북한 보건의료협력 및 통합(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 ▲평화공동체를 향한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 활성화(고유환 통일연구원장)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남북 보건의료 R&D 협력을 통해 기존 인도적 대북 지원을 넘어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남북 공생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현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의 문제점과 코로나19 특수성을 반영한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가동을 통한 의료협력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세미나에서는 김열 국립암센터 혁신전략실장이 '북한이탈주민으로 살펴본 북한주민의 건강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로 북한이탈주민의 진료 경험을 통한 북한 주민의 건강행태연구 결과와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모델 및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독일과 북한의 의료협력'에 대해 베른하르트 젤리거(Bernhard Seliger)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의 발표와,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의 '남북 보건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협력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문진수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장은 '평화미래를 향한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한반도 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통일의료에 대한 인식의 부족, 남북한 연구체계화 및 신진의학 교류협력의 허브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남북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문진수 소장은 흩어져 있는 북한 보건의료 정보의 통합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의 접근성·호환성을 제고해 기존 평화의료 교육기관들과 협업을 통한 평화의료 교육 및 전문인력양성, 국립암센터 등 지역 의료자원을 활용한 남북 의료인 임상교육 및 남북 R&D 프로세스 개발 지원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한반도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를 남북 접경지역인 고양시에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부 패널토론은 전우택 교수가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좌장을 맡았으며, 남종우(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 과장), 김기은(경기도 평화협력과 과장), 양승환(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 최성정(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대외협력본부장), 백성호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고명현(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정훈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원)이 참석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가 추구하는 평화의료는 남북 공존과 상생을 전제로 상호 교류·협력하는 실천적 모델"이라며 "남북관계 개선과 보건의료협력에 대한 중앙정부의 구상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실현해 나가는 데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향후 서울통일의학센터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센터건립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용역을 빠르게 시행해 기본계획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학력취득의 꿈, 서울교육청이 함께한다

장애인 합격자 대상 제2회 찾아가는 검정고시 합격증서 수여식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9월 28일 와상장애인 합격자 이은지씨 자택과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이하 노원복지관)에서 '2021년도 제2회 찾아가는 검정고시 합격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 합격자는 거동이 불편하여 교육청에서 개최된 수여식 참석이 불가했으나 금번 2021년도 제2회 수여식은 교육감이 직접 찾아가 합격증서 수여 및 학업성취에 대한 노고를 격려함으로써 그들의 발전적인 미래를 응원하고 최근 코로나-19 시기에 적합한 행사 방식을 모색한 결과 기획되었다.

교육감은 아동시절 의료사고를 당하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생긴 장애로 20여 년 간 누워서만 생활했었지만 학업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고 노력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제공한 '찾아가는 검정고시' 서비스를 이용해 중졸(2021년 1회)에 이어 고졸(2021년 2회)까지 연이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향후 대학진학 등을 통해 심리상담사가 되고 싶다는 소감을 밝힌 와상장애인 이은지씨 자택을 먼저 방문해 합격 증서를 전달했다.

노원복지관에서의 수여식에는 교육감을 비롯해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및 시각장애인 합격자 5명(중졸2·고졸3)과 그 가족 등이 참석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제한된 여건에서도 학력취득에 성공한 합격자를 위해 그들의 아름다운 앞날을 기원하는 격려사를 했다.

최근 10년(2012~2021년)동안 교육청 주관 검정고시로 총 93,513명(초졸 7,406명, 중졸 21,684명, 고졸 64,423명)이 학력취득을 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몸이 불편하여 학업을 이어나갈 수 없었던 장애인들이 검정고시 응시를 통해 학력취득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8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찾아가는 검정고시' 서비스를 통해 시험장 이동이 어려운 중증 지체장애인에게 자택 및 복지관 등에서 시험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시험 원서접수 기간 중 장애인 응시자가 대독/대필·확대문제지·시간 연장·시험 진행 안내 같은 편의제공을 신청하면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장애유형별 맞춤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시험당일에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시기에도 배움의 뜻을 굽히지 않은 수험생들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와 유증상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난 8월에 시행된 2021년 제2회 시험에서는 별도시험장 3개소(확진자2, 자가격리자1)와 일반고사장 11개소마다 유증상자 고사실을 마련하는 등 시험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급변하고 있는 요즘 시대 개인별 교육에 대한 가치관도 다양해지고 있다. 검정고시는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교육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교육사다리 역할을 하는 소중한 학력취득의 기회로 그분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은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과거의 고등학교 교육과 완전히 결별"

인천교육청, 고교학점제 중학교 학부모 연수 주제별로 진행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1 고교학점제 중학교 학부모 연수를 주제별로 진행했다고 9월 29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3년에 부분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사전 연수 신청자가 3,000여 명이 넘을 정도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았으며 특히 중학교 2학년 학부모들이 가장 많았다.

9월 28일 연수에서는 한국교원대학교 김성천 교수의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이라는 대주제 아래 고교학점제의 핵심가치, 고교교육과정의 한계,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비전과 방향, 삶으로 이어지는 교육과 배움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이어 9월 29일은 병점고등학교 정미라 교사의 '고교학점제와 학부모의 역할'이란 대주제 아래 현재교과와 미래교과, 교육의 공공성,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정보, 고교학점제의 중점사항 등을 통해 변화하는 교육체제 속에서의 학부모 역할을 성찰해 보는 강의가 진행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고교학점제는 과거의 고등학교 교육과 완전히 결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고등학교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시교육청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온몸으로 느끼고 배우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인천영종초, 6학년 197명 대상 강화도 생태환경 평화통일 체험활동

인천영종초등학교(교장 전정심)는 지난 9월 17일 6학년 학생 197명은 강화도 생태환경 평화통일 체험활동을 각 학급에서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이 4단계로 시행됨에 따라 안타깝게 취소된 강화도 해양환경체험학습장, 국화리체험학습장, 흥왕학습장, 서사체험학습장 입교 교육 프로그램을 대체해 교실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이음-체험꾸러미'세트를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바다쓰레기 리사이클링-바다 유리목걸이 만들기, 강화역사지도 만들기, 미래식량자원 밀원키트 만들기, 평화통일 지도 만들기 등 총 4가지 주제 활동을 통해 미래사회의 생태환경,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번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6학년 학생들은 "바다거북이의 코에 빨대가 들어가서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무심코 버린 쓰레기로 고통스러워 하는 거북이를 보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벌레를 징그럽게만 생각했는데 미래 대체 식량으로서 가치가 있다니 놀라웠다.", "강화도의 역사지도와 평화지도를 만들며 우리나라의 소중함에 대해 다 시한 번 생각하게 됐다." 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번 체험활동을 통해 영종초 학생들은 우리 인천의 역사에서부터 기후변화, 미래의 대체식량에 이르기까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바르게 인식하고 미래의 발전에 이바지 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시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져 학생들이 직접 강화도의 체험학습장에 입교하여 더 뜻깊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병선 기자 kbs@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은?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함께 소외계층 미디어 교육

인천신광초등학교(교장 윤희섭)는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재단에서 진행하는 소외계층 미소-이음 미디어교육 사업을 지원받았다.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ㅁ재단에서는 미디어 전문 강사 2명을 파견해서 학생들의 개별지도와 현실에 부합되는 맞춤형 교육으로 만족도를 높였다.

미소-이음 미디어 교육은 교육복지 대상 학생 12명을 중심으로 5월부터~9월까지 매주 금요일 2시간씩 15회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온라인 학습 병행이 길어지면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이에 학부모들의 고민도 점점 깊어졌다. 이를 예방하고자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육적 방법을 제시하고자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또한 최근 선호도가 높은 크리에이터 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심어주고 학습에 동기부여를 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미디어 기본교육 후 동영상 제작과 음원 삽입, 자막 처리 등 수준 높은 교육으로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교육주제 또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기후 위기'로 선정하고 학생들 눈높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했다. 이에 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미디어 사용법과 동영상 제작과정, 기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송복식 교육복지사는 "코로나19로 스마트폰을 더 가까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양질의 미디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재단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소외계층 학생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열려있기를 기대해 본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중등 교원 온·오프라인 수업 역량 강화

인천교육청, 2학기 등교 확대에 맞춰 블렌디드 수업 레시피 자료집 개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학기 등교 확대에 맞춰 중등 교원의 온·오프라인 수업 역량 강화 및 학생 참여 수업 활성화를 위한 '100개의 블렌디드 수업 레시피 자료집(2탄)'을 개발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이 자료집은 중등 블렌디드 수업 현장지원단 130명이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2가지 주제 ▲원격도구 안내(컨텐츠 제작 도구, 쌍방향 원격수업 도구, 평가 및 피드백 도구) ▲중·고등학교 전교과 교육과정 재구성 및 블렌디드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사례(124종)로 구성됐다.

시교육청 이병욱 중등교육과장은 "쌍방향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생 참여형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활성화를 위해 학교 현장이 노력하고 있다"며 "중·고등학교과 블렌디드 레시피 자료를 개발·보급을 통해 양질의 교수학습자료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불은초, 체육대회 기본에 충실한 '가을 운동회'

불은초등학교(교장 김양진)는 지난 9월 16일 운동장에서 '가을 운동회'를 실시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 2부로 나눠 저학년, 고학년이 따로 체육대회를 했다.

1부(오전) 저학년은 낙하산, 큰 공굴리기, 맹꽁이기차, 독도는 우리땅, 볼풀공 던지기, 볼볼 패스 등을 실시했고, 2부(오후) 고학년은 에어바운스 장애물달리기, 빅볼 배구, 바나나보트 릴레이, 2인 3각경기, 볼 바운딩 등을 실시했다.

가급적 연습이 요구되지 않고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 진행했으며 다양한 신체적 특성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다.

김병선 기자 kbs@

"중학교 형님이 책을 읽어 주어요"

인천경연유 · 초 · 중 통합운영학교, 독서 나눔 캠페인 실시

인천경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이현주)은 유·초·중 통합학교의 특성을 살려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9월 14일, 16일 이틀간 '중학교 형님이 책을 읽어 주어요' 캠페인을 실시했다.

중학교 독서동아리 학생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유치원을 방문해, 유아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만5세, 만4세 유아들에게는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을 만3세 유아들에게는 최숙희 작가의 '너는 어떤 씨앗이니?'라는 그림책을 읽어 줬다.

노란 앞치마를 두른 학생은 중학교 독서동아리로 2021년 인천시교육청 청소년 인문실험 운영 지원을 받아 결성됐다.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이번 9월 독서의 달 행사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책 읽어 주세요' 캠페인과 연계해 진행하게 됐다.

유치원 유아들은 재미있게 책을 읽어 준 중학교 형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전달했고, 중학교에 관심을 가진 유치원 유아들이 중학교 교정을 산책하기도 했다.

인천경연중학교 독서동아리 학생들은 평소 비경쟁 독서토론으로 함께 책을 읽고 소통해 왔으며, 회원 중에는 외부 독후감 대회(인천중구청 주최 '백범 김구 청소년 독후감 대회)에도 참여해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에 어린 동생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됐고, 무엇보다 한 울타리에 살고 있는 유치원 동생들과 책을 통해 더욱 가까워지고 사랑과 봉사를 나누는 시간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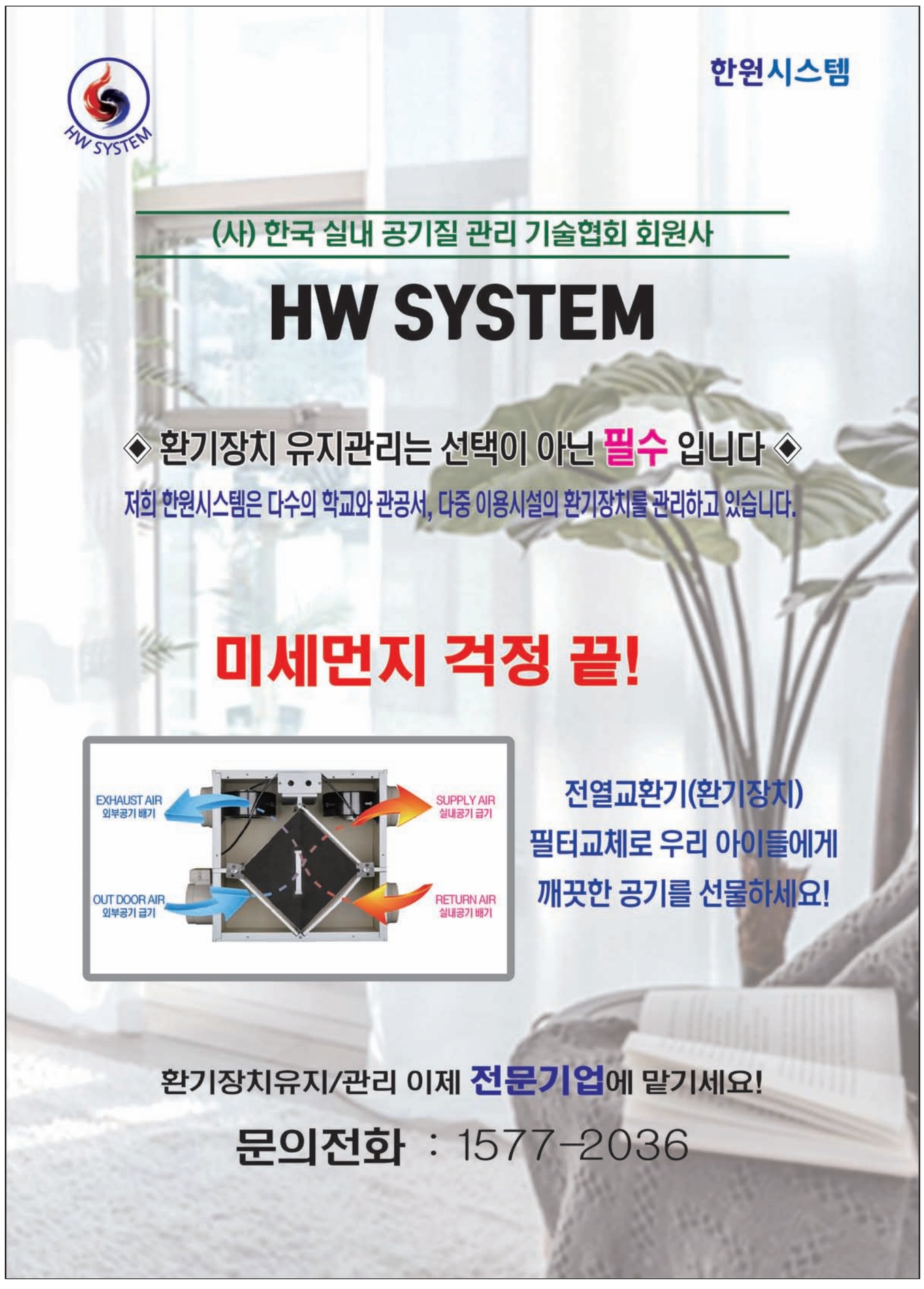
책을 읽어 주기에 참여한 한 여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친해지는데 6개월이 걸렸고, 특히 어린이 앞에서는 더욱 두렵고 떨렸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 자신감이 붙었다"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인천 남동구, 공공시설 화장실 불법 촬영 집중 단속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남동구청 청사를 포함한 공공시설 내 공중화장실 25곳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집중 단속과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고 1일 밝혔다.

7명의 민·관 합동점검조는 구본청 및 별관, 보건소, 평생학습관, 의회 등 5개 건물 남녀 화장실 전체에 대해 탐지 장비를 활용해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촬영 카메라 수시 점검을 알리는 스티커 부착 상태도 확인했다. 이어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구는 현재 별도의 몰래카메라 점검 인력(4명)을 꾸리고, 렌즈·전파탐지형 현장장비를 활용해 지역 내 공중화장실 약 210곳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작가와의 만남

인천경연초중, 학부모 독서 동아리 주최 '정의를 찾는 소녀' 랜선 만남

인천경연초중학교(교장 이현주)에서는 9월 29일 독서의 달을 맞이해 오전10시부터 중학교 학부모 독서 동아리 주최로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했다.

중학교 학부모 독서 동아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비로 4월 초 10명으로 구성됐다. 자율적으로 매달 1회 같은 책을 읽고 2021년 구축된 학부모 커뮤니티실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모임 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작가와의 만남은 '정의를 찾는 소녀'의 저자 유범상(한국통신대학교 교수, 인천시교육청 학교민주주의교육 교사아카데미 책임 교수)과 함께 초중학부모와 지역 주민 약 30명이 Zoom으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강의에서는 철학자 마다 다르게 정의되는 '정의란 무엇인가',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통한 토론 소개, 중학교 교과서 '시민과 사회정의'가 소개되었으며 스웨덴의 각 마을마다 진행되는 학습동아리 등도 소개됐다. '시민과 사회정의'는 학부모 독서 동아리회원들이 '정의를 찾는 소녀'와 함께 워크북으로 읽었던 책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 독서 동아리가 주최가 돼 사서교사의 간단한 행사 진행 소개와 교장선생님 인사,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돼 학부모가 온전히 주도적으로 행사의 주체가 돼 더욱 뜻깊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학부모로 또 사회 구성원으로, 한 인간으로 자아를 되돌아 보고 동아리를 통해 잊고 살았던 것들에 대한 가치들도 함께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정의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해 줄 것인가 의견을 나누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끝까지 함께 참여했던 이현주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정의(Justice)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기도 하지만, 모두가 정의를 기반으로 더 좋은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며, 참가자들이 진지하게 끝까지 참여하는 모습이 훌륭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통합운영학교로서 학부모 독서동아리의 지식과 생각 나눔은 훌륭한 사례를 만들어 가는 의미있는 활동이다"라는 참여 소감을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계양도서관, 청소년 사서 진로직업체험단 운영

인천시교육청계양도서관(관장 강경은)은 지역 청소년들의 직업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10월부터 '청소년 사서 진로진업체험단(청사진)'을 운영한다.

청사진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서 업무와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으로, 참여자들은 재미와 흥미를 더하기 위해 도서관 구석구석과 홈페이지 등을 탐색해 배운 내용을 직접 미션처럼 수행하며 체험한다.

청사진은 인천시 소재 중·고등학교와 연계해 진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소규모로 모집·운영할 계획이다.

계양도서관 관계자는 "청사진이 청소년들의 진로 고민과 선택에 도움이 되고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인천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청사진을 꿈꿀 수 있도록 계양도서관이 곁에서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얼어붙은 이웃 마음에 희망을 전해요"

인천해원중,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을 위한 에코백 기부

인천해원중학교(교장 한희식)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을 위해 에코백을 제작해 기부했다.

인천서구 국제화 특구 선정 동아리인 뚜이뚜이쩐빵(담당교사 이은진, 학생대표 강희원)을 중심으로 3학년 부장교사 김미경 외 담임교사 10명과 3학년 희망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다.

에코백은 자가격리를 마치고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이동 시 사용할 물품이라고 한다.

학생들이 직접 'with us'라는 글자를 에코백에 그려 넣어 낯선 땅에서 적응하고 있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에게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학생들의 마음을 담은 그림과 글자가 새겨진 에코백을 9월 18일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 재개발원에 해당 동아리 교사가 법무부 담당자에게 전달했다.

동아리 대표 강희원 학생은 "아프카니스탄 특별기여자들에게 에코백 기부활동을 하면서 글자와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이 다소 어렵고 서툴렀지만, 학생의 신분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했으며 이를 통해 친구들과도 기부의 즐거움에 대해 나눌 수 있었고 배움을 나눔으로 실천할 수 있어 뿌듯했다"는 활동 소감을 밝혔다.

인천해원중학교는 지난해에도 해당 동아리(뚜이뚜이쩐빵)를 주축으로 교사와 3학년 학생들이 인천서구청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수제 마스크를 제작해 기부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도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실천하려는 교사와 학생들의 꾸준한 노력이 돋보인다. 또한, 작은 일에서부터 나누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생들이 몸소 보여주는 기부이다.

지속적인 나눔과 실천이 아프간 특별기여자에게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마음도 몸도 얼어붙은 이웃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기대해 본다. 김병선 기자 kbs@

직업교육도 특성에 맞게

인천교육청,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기관 맞춤형 컨설팅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0월 1일 밝혔다.

직업과정 위탁교육은 일반고 학생이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위탁교육 기관을 통해 직업교육을 지원·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833명의 일반고 학생들이 고용노동부 지원 위탁교육 기관과 인천산업정보학교 등 43개 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성적 산출방식 등 학교와 위탁교육 기관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교육과정 편성, 출결 처리 방법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맞춤형 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관점에서 위탁교육을 분석해 위탁교육 기관은 각 기관별 특성을 살린 활발한 교육활동을, 일반고는 위탁교육 학생들에 대한 지원·관리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시교육청·인천고용센터·일반고와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해 직업교육을 원하는 일반고 학생들이 양질의 위탁교육을 받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시대에 부응하는 자료들로 가득

인천교육청 통합전자도서관, 전자책 · 오디오북 업그레이드

인천광역시교육청 북구도서관(관장 나영희)은 2021년도 3차 신간 전자책·오디오북을 서비스한다고 9월 29일 밝혔다.

이번 3차 신간 전자책 123종의 경우, 2021년 교보문고 개인이용자 기준 이용실적이 높은 도서 중 2021년 이후 출간된 신간도서 위주로 선정했다. 특히 전자책으로 이용률이 높은 경제서, 문학서 위주로 구성됐다.

3차 신간 오디오북 109종은 기관 납품 후 이용실적이 높은 도서 중 2021년 이후 출간된 신간도서 위주로 선정됐으며, 이용률이 높은 에세이, 수필, 철학 등 주제의 자료가 주를 이뤘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전자도서관 전자책·오디오북 서비스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8개 도서관(북구, 중앙, 부평, 주안, 화도진, 서구, 계양, 연수) 및 평생학습관 책이음 회원이거나 인천시민(학생)인증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나영희 북구도서관 관장은 "새로운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도서관에서 전자도서관은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며 "사회 변화 및 흐름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들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북구도서관 또는 통합전자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ice.go.kr/elib/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용섭 기자 ays@

인천북부교육지원청, 교육회복 위한 학습종합클리닉 소식지 발행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식)은 10월 1일 교육회복을 위한 학습상담사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습종합클리닉 소식지를 발행했다.

학습종합클리닉에서는 전문자격을 갖춘 '학습상담사'가 학교를 방문해 학생과 1:1 맞춤형 학습을 진행하고, 심층 진단검사 후 학생의 학습 및 정서 행동 영역을 파악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는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800회 이상의 학습상담을 실시했으며, 매월 협의회를 통해 교육회복 지도 사례, 학습상담 이론, 우수 교재·교구 정보를 관내 42개 초등학교에 소식지로 전파하고 있다.

지도 사례를 발표한 조현민 학습상담사는 "장기간의 학습결손으로 인해 학생들은 심리·정서적으로 학습된 무기력을 느끼고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학습태도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이러한 교육회복 사례를 소식지로 안내해 학교의 교육회복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전병식 교육장은 "학습종합클리닉 소식지 발행을 통해 교육회복에 대한 교육구성원들의 관심을 높이고 협력을 촉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2021 하반기 장학생 모집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이사장 이노경)이 꿈과 재능이 있는 계양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2021년도 하반기 장학생을 모집한다. 신청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학생 또는 학부모이며, 학업우수 및 드림장학생의 경우 대학교 재학생을, 특기장학생은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이번 달 12일부터 20일까지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 결과는 12월 초에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은 2019년부터 지역 미래인재 양성을 145명 초·중·고·대 학생들에게 약 1억6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했다.

가을의 문턱, 특별한 향으로 유혹한다!

딥티크, 탄생 60주년 기념 한정판 컬렉션
헉슬리, 첫 향수 시그니처 퍼퓸 3종 론칭
예스24, 더블유드레스룸과 협업 라인 공개

가을 시즌이 시작되면서 향수 시장도 새로운 가능 향으로 풍성한 가을을 예고했다. 사진 = 1.딥티크의 '르 그랑 투어(Le Grand Tour)' 컬렉션 2.헉슬리의 '시그니처 퍼퓸' 컬렉션

특별한 향을 더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사진 = 1.예스24의 더블유드레스룸 콜라보 라인 2.티퍼런스의 '센트케어' 3종

향수 시장도 새로운 가능 향으로 풍성한 가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특별한 의미를 담은 한정판 제품과 이색 협업, 새롭게 공개된 시그니처향이 가을 여심을 유혹한다.

먼저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수입·판매하는 프랑스 니치 향수 브랜드 딥티크는 브랜드에 영감을 주던 5개 도시의 향을 담은 '르 그랑 투어(Le Grand Tour)' 컬렉션을 내놓았다.

딥티크는 1961년 디자인을 공부한 3명의 예술가에 의해 설립된 1세대 니치 향수 브랜드다. 딥티크(diptyque)란 프랑스어로 두 개의 그림이 펼쳐지는 '2단 접이 화판'을 뜻하는데, 파리 생제르망 매장 내 두 개의 쇼윈도로부터 그 이름이 유래됐다.

매장 오픈 당시에는 패브릭과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하는 편집숍 형태로 운영됐으나 1963년 브랜드의 첫 향초인 오베삔느(AUBEPINE)를 출시하고, 이어 1968년 세계 최초로 성별 구분 없는 젠더리스 콘셉트의 향수 로(L'EAU)를 론칭하면서 오늘날의 향수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됐다.

딥티크는 조향사나 뷰티 전문가가 아닌 무대 디자이너와 실내 건축가, 화가가 모여 만든 만큼 단순히 향기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시각과 촉각, 후각 등 모든 창조적인 감각을 완성시키는 브랜드다. 각각의 제품에는 향기가 탄생한 고유의 스토리가 아름다운 일러스트로 표현돼 있는데 예술적 가치까지 지니고 있어 향수 애호가와 수집가를 열광시키고 있다.

브랜드 론칭 60주년 기념 향수인 르 그랑 투어는 60년 간 딥티크의 창립자들이 전 세계 도시를 돌며 창작의 영감을 얻었던 여행지의 후각적 추억을 재현한 컬렉션이다.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베니스, 그리스 밀리에스, 아시아 교토, 중동 비블로스 등 5개 도시의 향이 향초, 향수, 고체 방향제로 탄생했다.

'파리 캔들'은 버드나무가 늘어선 센강변의 산책을 떠올리게 하는 향초이며, 창립자들이 자주 방문했던 베니스에서 영감을 받은 '베니스 오 드 뚜왈렛'은 피망, 바질 등 푸른 식물이 자라는 호숫가 옆 텃밭을 연상시키는 여행용 사이즈의 향수 세트다.

'밀리에스 센티드 오발'은 그리스 밀리에스 해변가 마을의 오솔길을 거니는 느낌을 표현한 고체 방향제로 밀리에스 전통 목걸이에서 영감을 얻은 대리석 구슬과 태슬(수술 장식)로 장식했다.

'교토 오 드 뚜왈렛'은 동양식 꽃꽂이의 3가지 요소인 하늘을 상징하는 인센스 향, 인간을 나타내는 장미, 세속적 연결성을 표현하는 베티버로 구성된 향수다. 동양 전통 포장 방식인 보자기로 감싸 소장욕구를 불러일으킨다.

마지막으로 '비블로스 캔들'은 중동의 가장 오래된 항구도시를 떠올리며 만든 대형 향초로 산토스 커피의 토바코와 시원한 백향목 등이 특징이다. 커피 연기를 연상시키는 용기는 독특한 도자기 기법을 사용해 제품마다 각각 다른 무늬를 담고 있다.

헉슬리는 브랜드의 모티브이기도 한 모로코의 정원과 사막, 도시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3가지 향의 '시그니처 퍼퓸' 컬렉션을 공개했다. 지난 2015년 론칭한 헉슬리는 사하라 사막에서 자란 고귀한 원료인 선인장 시드 오일을 주 원료로 한 전 제품에 스위스 향료 회사와 협업해 탄생한 시그니처 향 '모로칸 가드너'를 담아 선보이며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19년에는 '모로칸 가드너' 외에 '베르베르 포트레이트'와 '블루 메디나 탠저린'까지 더해진 총 3가지의 시그니처 향을 핸드크림으로 소개한 데 이어 약 3년 여의 준비 기간 끝에 첫 향수인 시그니처 퍼퓸 컬렉션을 론칭하게 됐다.

싱그러운 모로코 정원을 표현한 '퍼퓸 모로칸 가드너'의 첫 향은 신록에서 스며 나오는 차가운 습기를 떠올리게 한다. 이내 정제되지 않은 꽃과 나무의 향이 섞여 정원을 걷는 듯 한 인상을 주며, 마지막 베이스 노트에 이르러 부드럽게 깔리는 머스크가 긴장을 풀어주고 휴식의 감각을 일깨워 준다.

'퍼퓸 베르베르 포트레이트'는 모로코 베르베르인을 연상시키는 원초적 오리엔탈 향취로 시작해 사막의 지평을 가로지르는 그들의 여정을 순수하고 따뜻한 우디 엠버의 미들 노트로 표현했다. 바닐라 발삼의 베이스 노트로 마무리되며 아름다운 사막의 이미지의 감미로운 잔향을 남기는 것이 특징이다.

'퍼퓸 블루 메디나 탠저린'은 온통 파란색의 메디나 도시에서 느껴지는 시각적인 청량함에 뒤이어 신선한 탠저린 껍질, 무성하게 자란 잎과 가지의 풋풋하고 쌉싸름한 향기가 섞여 든다. 시트러스에서 우디 앰버로 이어지는 베이스 노트는 도시의 활기와 여유로움을 동시에 담아냈다.

브랜드 론칭 직후부터 고객들과 향수 매니아들 사이에서 입소문 타며 꾸준히 사랑 받아온 헉슬리의 3가지 향수는 향 지속시간이 가장 긴 '퍼퓸' 제품으로 향이 6~8시간 정도 지속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트 별로 변화하는 향기를 풍부하게 즐길 수 있다. 또한 오벌(oval) 쉐입의 핸디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바틀과도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대한민국 대표 서점 예스24는 향기 전문 브랜드 더블유드레스룸과 손잡고 독서의 감성을 더해 줄 두 가지 시그니처 향을 선보였다. 예스24 시그니처 향은 잔잔한 모닥불에 타들어가는 공기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스모키 향과 매력적인 우드 향이 조화된 '상딸' 향, 촉촉하게 내리는 비에 젖어드는 고요한 초록 대지의 새벽을 떠올리게 하는 '얼디 그린' 향이다. 예스24의 아이덴티티가 담긴 두 가지 향은 디퓨저와 핸드크림 등 다양한 굿즈로 만나볼 수 있다.

'YES24 시그니처 디퓨저'는 서재나 거실 등 책과 함께하는 일상의 공간을 은은한 향기로 채워 편안한 감성을 더해 주며, 디퓨저의 향을 그대로 담아낸 'YES24 시그니처 핸드크림'은 요즘처럼 손을 자주 씻게 되는 시기 촉촉한 보습을 돕는다.

함께 선보이는 'YES24 시그니처 필로우 미스트'는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라벤더 향에 피부 저자극 레시피를 담아 독서 혹은 잠자기 전 베개와 공중에 뿌려주면 편안한 릴렉싱을 돕는다.

자연의 고귀한 힘을 그대로 담은 프리미엄 퍼플티&퍼플티 스킨케어 브랜드 티퍼런스는 자연유래 향 100%를 담은 센트케어(Scent Care) 3종을 출시했다. '센트케어' 라인은 퍼플티 고유의 강인한 생명력에 자연 그대로의 향을 더해 피부는 물론 몸과 마음에 깊은 휴식을 선사하는 바디&핸드 라인이다.

세계 향수의 수도로 알려진 프랑스 그라스의 300년 향기 노하우를 고스란히 담았다. 바르는 순간 코 끝을 감싸는 블랙베리와 히비스커스의 은은한 향 사이로 유칼립투스의 향이 피어오르고, 마지막으로 샌달우드 향이 긴 여운을 남긴다.

이번 신제품은 핸드앤바디 워시 퍼플티 포레스트와 핸드앤바디 에멀전 퍼플티 포레스트, 핸드케어 퍼플티 포레스트 총 3종이다. 3종 모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퍼플티(Purple Tea)가 함유되어 있으며 글로벌 품질 인증기관 뷰로 베리타스(BUREAU VERITAS)의 검증을 거친 프랑스 아르제빌사의 프리미엄 자연유래 향료를 사용했다.

'핸드앤바디 워시'는 자연유래 세정 성분으로 피부를 순하고 깨끗하게 씻어주며 판테놀 성분이 샤워 후에도 당기지 않는 촉촉한 피부로 관리해 주고 '핸드앤바디 에멀전'과 '핸드케어'는 마키다미아씨오일 등의 식물성 보습성분이 부드럽게 스며들어 거칠어진 손과 바디 피부를 케어해 준다.

교육부

모든 학생의
성장을 이끄는
교육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자기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 성장하는 학생
지속 가능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사
가르치는 보람과 배우는 즐거움이 넘치는 교실
모두의 꿈을 이루어가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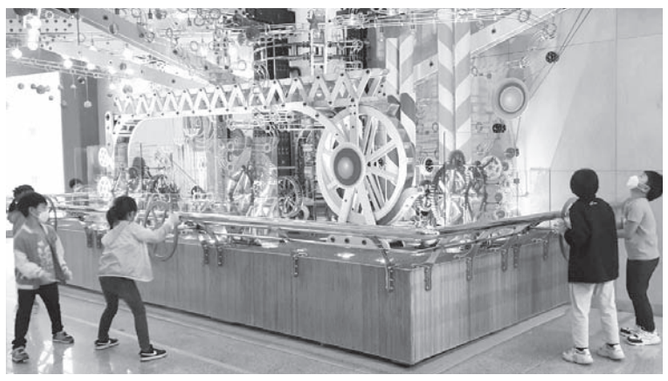
‘즐거운 상상, 미래를 마주하다’

충북자연과학교육원, ‘창의융합 미래교육축제’ 11월 30일까지 대면·비대면 운영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원장 최명렬)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1. 창의융합 미래교육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즐거운 상상, 미래를 마주하다!’의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비대면을 병행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수학·환경·영재·발명 영역을 총망라하여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까지 함께 즐기고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축제는 ▲언제 어디서나 체험할 수 있는 전시마당 ▲개인의 요구에 부응하여 맞춤형 선택이 가능한 학술마당 ▲지역격차를 줄이는 체험마당으로 다채롭게 구성하여 운영한다. 언제 어디서나 체험이 가능한 전시마당에는 ▲국립수목원 식물세밀화 순회전시회 ▲사제동행 전자현미경 사진전 ▲U-수학갤러리 ▲우암골생태사진전 ▲초록학교 활동 사진전 ▲온라인 천문여행 ‘NeoWise’ ▲환경 샌드아트를 비롯한 15마당이 준비되어 있다.

개인 맞춤형 선택으로 현장 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학술마당에는 ▲한반도 지오투어 연수 ▲도심속 달달한 천체관측 ▲과학, 수학, 환경교육 수업사례나눔 ▲생물다양성 탐사 교원 연수 등 18마당이 마련되어있다.

지역 격차를 줄이는 모두를 위한 체험마당에는 ▲학부모 과학교실 ▲찾아가는 별똥대 ▲세대공감 ‘과학관은 살아있다!’ ▲자기주도성 성장 충북고교사이언스캠프 ▲무한수학체험마당 ▲거점형 학교연합 수학축제 ▲영재교육 소통 공감토론회 등 15마당이 있다.

도내 학생·교사·학부모·일반인 모두 참여 가능하며, 참여 방법은 자연과학교육원 누리집(www.cbnse.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도서 기자 gds@

미래교육 AI 활용 방향·방법 모색

충북교육정책연구소, 제11회교육정책아카데미 열어

충북교육정책연구소(소장 박을석)가 ‘학교교육 AI 활용 방안 탐색’을 주제로 10월 1일 오후 제11회 충북교육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교육정책아카데미는 충북교육정책연구소가 주관하여 주요 교육정책과 교육이슈, 미래교육에 대해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와 토론을 통해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있는 행사이다.

이번 교육정책아카데미는 최근 학교교육에서 AI활용 방안 탐색 연구를 진행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홍선주 박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미래 교육의 중요한 의제로 등장한 학교교육에 AI활용 방안과 방향성, 정책적 유의사항을 깊이있게 검토하였다. 아카데미에는 김병우 교육감과 주요 교육정책담당자 및 연구원들이 함께 하여 강사와 2시간 동안 열띤 토의의 시간을 가졌다.

AI활용 교육은 ‘AI와 함께 하는 학습’과 ‘AI에 대한 학습’으로 나눌수 있으나 통합하여 AIED(AI in Education)라고 할 수 있다.

즉 AI 및 에듀테크를 직접적인 교수 학습의 도구와 학습자 모니터링 도구, 평가 및 채점 도구로 활용하는 접근을 포괄하는 것이다.

홍선주 박사는 강의를 통해 교수학습단계별로 14개 하위영역에서 AI활용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학교교육에서 AI의 역할을 ‘학생을 위한 보조교사’와 ‘교사를 위한 인지적 파트너’로 제시하였다.

다만, 현 단계에서 모든 학습영역에서 무제한적으로 AI를 활용하기는 어려우며 목표대상을 명확히 하여 기업과 교육청, 학교가 함께 하는 협력체를 구성하여 플랫폼을 개발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김병우 교육감은 “충북교육청은 앞장서서 AI의 활용에 대해 고민을 했으며, AI영재학교 설립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래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고민하고 모색하는 좋은 기회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점검해나가는 교육정책아카데미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구도서 기자 gds@

충북교육청 “학교 정보화 업무 대폭 경감”

교원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각급학교 정보화 업무를 대폭 경감하여 교원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통합지원체계 구축, 학교 정보화 업무 교육청 이관 추진 등을 실시한다고 10월 1일 밝혔다.

그간 교육 현장에서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한 정보화기기 사용 급증 ▲대규모 인원 동시 사용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필요 ▲각급 학교 정보화 업무 지원 대책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이를 위해 2021년 1월 미래인재과에 학교정보화 지원팀과 음성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에 정보지원팀을 신설하여 추진했다.

도교육청은 단계적 업무 이관 계획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학교에서 매월 실시하는 ‘내 PC 지키미’, ‘사이버 보안진단일지 작성’과 ‘무선망 관리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2022년 3월까지 학교 컴퓨터 및 S/W 현황 관리, IP 대장 관리, 업무용 컴퓨터 보급 등 13개 학교 정보화 업무를 이관한다. 특히, 학교 정보화기기 유지관리 개선을 위해 원클릭 A/S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급학교 정보화기기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 접수 및 조치로 최상의 교수학습 환경을 지원한다.

그간 소속 교직원이 정보담당자(정보교사)를 통해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하여 처리하던 방식을 벗어나 교직원이 직접 서비스를 신청(소통메신저 또는 모바일) 하고, 업체는 서비스 신청 수신시 원클릭으로 접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업무체계를 대폭 축소하여 업무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 3월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학생들에게 보급되는 스마트기기에 대한 파손 및 분실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학생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스마트기기 고장 시 학생이 서비스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수리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방문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A/S 접수를 통해 당일 무료 배달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구도서 기자 gds@

충북 미래 인재 위해 대학과 맞손

충북교육청, 자기주도성 역량 갖춘 인재 육성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9월 29일 청주대학교 도서관에서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자기주도성과 변혁적 역량을 가진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충북도내 17개 대학 총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충북교육청과 도내 전체 대학은 고교 교육을 넘어 초·중등 및 고등교육 연계를 통해 지역의 인재가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역 교육생태계 구축에 한 걸음 도약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2020년부터 지역혁신사업플랫폼 및 국립대학육성사업과 협력했다.

이를 통해 ▲200여명의 교·강사 인력풀 구축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반영한 고시외 과목 개발 ▲지역사회 전문가가 참여한 고교 정규 교과목 및 진로 심화 과정 개설 ▲실험 및 체험 교과목의 지역연합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교육문화 복합 공간 구축을 추진해왔다.

이번 충북도내 대학 총장협의회와의 업무협약으로 ▲학생의 진로·학업설계를 위한 교과목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교학점제 지원 ▲초·중등 및 고등교육으로 연계되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지역 교육생태계 구축 ▲학생의 성장과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교수·학습 전문가 양성 ▲지역사회 전체가 ‘확장된 학교’ 역할을 하도록 상호 합력할 예정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지역은 또 하나의 중심이며 지역의 정서를 품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대학 공동 협력을 통해 지역 교육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발전을 주도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미래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도서 기자 gds@

오창고, 멸종위기식물 보호 앞장

개정향풀 서식지 조성… 학생 자율 동아리 중심 관리

오창고등학교(교장 송영광)은 오창고 기숙사 주변 등에 개정향풀 서식지를 조성하여 학생 자율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식물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나포마’라는 약용으로도 쓰이는 개정향풀은 쌍떡잎식물 용담목 협죽도과의 여러해살이풀로, 1910년대까지 자생하다가 90여년 동안 발견되지 않아 한때 멸종한 것으로 알려져 멸종위기식물로 지정되기도 했다.

작년 10월 이후 현재 오창읍 장대리 도로변에 자생하고 있던 개정향풀 군집을 오창고 ‘의생명과학 탐구 동아리’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서식 상태를 지속적으로 보호 관리해왔다.

이를 계기로 이번 미동산 충북산림환경연구소에서 묘목재배에 성공한 100여 주를 제공받아 교내 2개 장소에(기숙사 1층 남쪽, 학교 현수막 게시대 화단)서식 정원을 조성했다. 이 정원을 학생 자율동아리 중심으로 수시 관리하며 멸종위기식물 보호 및 생명존중 등 다양한 교육활동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송영광 교장은 “충북산림환경연구소와 연계하여 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존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학교 서식지에 적용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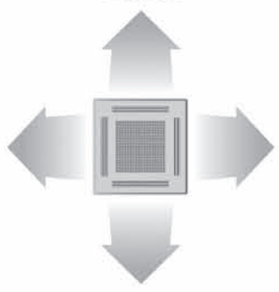
구도서 기자 g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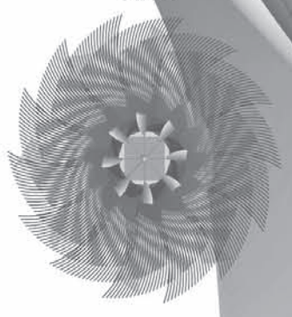
SAMSUNG 삼성해상화재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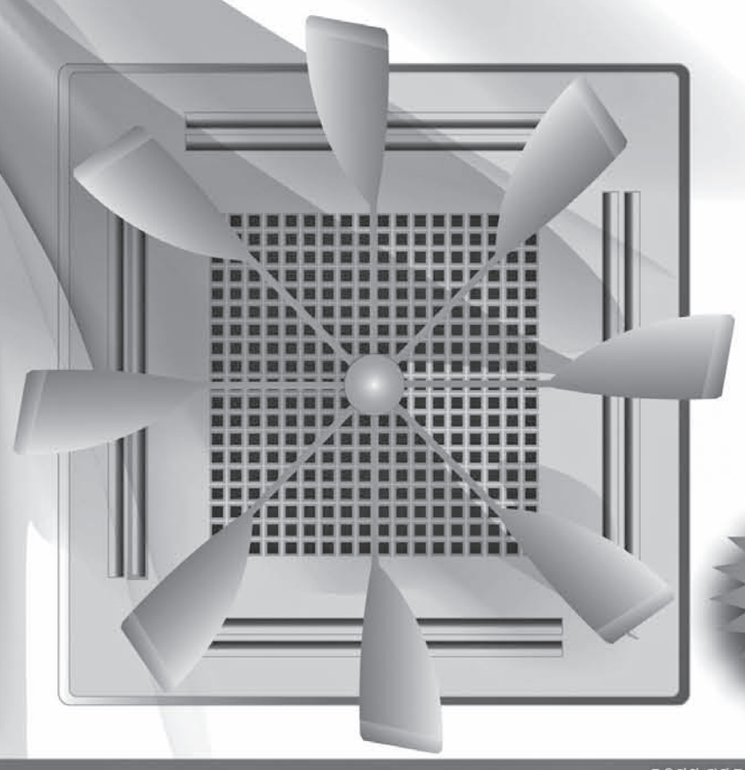
한쪽으로만 오는 바람은 이제 그만!!!

특허등록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된 장소에서 확산을 통한 고른 냉난방 효과 발생

Before

winfan 장착 전
직바람으로
한정된 공간만 냉·난방

After

winfan 장착 후
사방으로 바람을 확산시켜
고른 냉·난방



특허출원

winfan
System that circulates wind widely
원팬

제품 특징
- 경쟁제품 대비 적은 부품수
(빠른 조립이 가능하고, 고장이 적다.)
- 날개이탈 및 날개각도 변형이 없다
(튼튼한 부품 및 내구성 강한 제품구조)
- 바람각 제어장치를 통한 바람각 조절가능

전기료 년 20%

겨울철 실내온도 2도
여름철 실내온도 2도

근린시설: 대형마트, 편의점, 미용실,병원
실내환경: 사무실, 주택, 상가 음식점,원룸
관공서: 시청,구청 군청,도청 주민센터,경찰서
교육기관: 대학교, 초·중고,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시설: 도서관,박물관 터미널,공항 로비
숙박업소: 호텔, 모텔,팬션, 리조트,콘도

구매가격 : ₩137,500 (VAT포함)
설치비 : ₩15,000 (VAT포함)

소나파 [SONATA] 고객센터 : 070·4166·3516 팩스 : 053·383·5018 E-mail : modus1223@naver.com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S2B [학교장터] S2B 물품번호 201905198933179 무동력 원팬

조선대 "건학 100년 향한 재도약"

개교 75주년 기념식 개최… "교육·산학·재정 3대 혁신으로 대학경쟁력 고도화"

1946년 7만2천여 설립동지회원의 숭고한 뜻으로 설립된 조선대학교가 개교 75주년을 기념하고 건학 100년을 향한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9월 28일 열린 조선대학교 개교 75주년 기념식은 오전 10시 30분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민영돈 총장을 비롯해 각 대학 구성원, 내외빈 등 최소한의 인원만이 참석했으며 김춘성 기획조정실장의 75년간의 발전상을 담은 조선대학교 연혁 낭독으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어 김종경 교무처장의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입회 권유문' 낭독과 상장 및 감사패가 수여됐다.

학교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구성원에게 수여하는 이사장상에는 김용섭(법사회대학 행정복지학부) 외 4명이 상을 받았으며 30년 근속포상에는 박종(의과대학 의예과) 외 8명, 20년 근속포상은 류소연(의과대학 의예과) 외 32명이 장기근속포상자로 선정됐다.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 학자적 덕망이 높고, 연구와 저술 및 창작활동 등의 업적이 탁월해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교수 2명에게 수여하는 백악학술상에는 서영환(미술체육대학 체육학과) 교수와 한미아(의과대학 의예과) 교수가 선정됐다.

연구논문 업적이 탁월해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교원에게 수여하는 백악우수논문상에는 이현재(공과대학 스마트이동체융합시스템공학부) 교수 외 9명이 수상했다.

산학협력 분야의 우수교원에게 시상되는 백악산학협력상에는 김동민(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교수와 손정선(기초교육대학 자유전공학부) 교수가 상을 받았다.

이어 공로상은 김춘욱(취업학생처 생활관운영팀) 외 2명, 특별공로상 수상자는 이대용(경상대학 경영학부) 외 1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교육혁신원 이러닝지원팀 외 14개 부서가 상을 수여 받았다. 모범상은 김명범(연구처 산학연구협력팀) 외 7명이 상을 수여 받았다.

김이수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조선대학교는 해방 이후 전국 최초로 설립된 민립대학으로 어느 사학도 갖고 있지 못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이와 함께 구성원들의 연대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조선대학교의 100년을 열어가기 위해 함께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수 조선대학교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우리는 75년 전 우리의 모교를 세운 조선대학 설립동지회원들의 숭고한 뜻과 헌신적 열정을 기억하고 있다"며 "총동창회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훌륭한 리더로 활약하고 있는 30만 동문들의 힘을 결집해 모교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영돈 총장은 "학생이 중심이 되는 대학, 지역민과 함께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교육·산학·재정의 3대 혁신으로 대학경쟁력을 고도화하겠다"며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통해 자랑스러운 100년 대학의 꿈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5년의 역사 속에 약 30만 명의 동문을 배출한 조선대학교는 1964년 9월 29일 개성교육·생산교육·영재교육이라는 3대 건학이념에 맞춰 현재까지 학생들의 발전적 미래를 모색하고 나아가 학생성공을 이끌어주는 호남 대표 사학이다.

또 조선대학교는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 재정지원대학에 선정돼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이어 사학혁신 지원사업,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양자컴퓨터 관련 양자 내성 보안기술 개발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국내 최초 해조류 바이오 유효성 실증센터 구축, 호남 최초 초소형 인공위성 발사 등 굵직한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기호 기자 2580news@daum.net

"식품 대하는 진실한 마음가짐이 더 중요"

호남대 '식품명인 대물림 프로젝트' 비건부각 기술 전수

호남대학교 외식조리학과가 진행하고 있는 '2021 식품명인 대물림 프로젝트'에 참여중인 수강생들이 9월 28일 백양사 천진암에서 정관 스님(풋내사찰음식연구소장, 넷플릭스 Chef's Table출연)의 비건 부각 숙련 기술을 대물림 받았다.

정관스님은 이날 김, 우엉, 연근, 감자 부각 등 4종의 비건 부각 노하우를 공개했다. 수업은 부각별 맛 평가에 이어 정관스님의 노하우가 담긴 비건용 김부각 찹쌀풀 쑤는 방법과 우엉과 연근 등 식재료의 이해, 김과 우엉, 연근부각을 만드는 비법 전수로 진행됐다.

정관스님은 "비건은 순수 식품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을 만드는 과정이나 식재료를 대하는 진실한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 수강생인 느린 부각마을 노지현 대표는 "기존 부각에 비해 정관스님의 부각은 담백하고 아삭한 맛이 강해 소비자의 반응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호남대 송기희 책임교수는 "이번 대물림 수강생 중 정관스님과 협업을 통해 바른 간식거리로 비건 부각 상품화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EPIS)이 공모한 '2021 식품숙련기술 대물림프로젝트'는 지난 6월 14일 시작돼 10월 6일 호남대 현명관에서 수강생 40명의 전시와 수료식을 끝으로 4개월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이기호 기자 2580news@daum.net

광주교육청 "코로나 위기 함께 극복하자"

코로나19 피해 지원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 기간연장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피해지원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 2월 1일~2021년 6월 30일 17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지원안'을 시행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고 올해 하반기에는 오히려 확진자가 증가해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광주교육청은 피해지원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피해지원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게 임차인이 코로나19 사태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는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 주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공유재산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 5%인 임대료 요율을 1%로 인하한다. 요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임대료가 최대 80%까지 줄어들어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피해지원은 폐교재산을 포함한 공유재산을 임차한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차인이 대기업이나 변상금 체납자인 경우 또는 공유재산의 용도가 주거·주차·경작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피해지원 기간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호 기자 2580news@daum.net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주말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 광주남부경찰서와 함께 '희망편의점'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5~26일 이틀 동안 아동복지시설 학생 대상 숲 체험 프로그램 '숲, 그 품에서 오감을 느끼다'를 실시했다.

27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숲 체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아동복지시설 아이들에게 자연과 어우러지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립장성숲체원'에서 진행된 이번 숲 체험은 '희망편의점' 주말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희망편의점' 주말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난 6월 두 차례 '무등산 트래킹 체험'을 실시한 바 있다. '희망편의점'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는 학생들의 소외감·우울감 극복, 시설 퇴소 이후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아이들은 이번 숲 체험을 통해 생태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었고, 더 밝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 숲에서 찍은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 보며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도 함께 쌓을 수 있었다.

이기호 기자 2580news@daum.net

디지털·아날로그 프로그램 결합 안전체험교육

광주교육청 ·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학생 맞춤형 안전체험 업무협약식

광주광역시교육청과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이 29일 오후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4층 회의실에서 '학생 맞춤형 안전체험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북구 능안로(광주자연과학고 옆)에 위치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시교육청이 부지 4,260평을 광주시에 무상으로 제공해 지난 2018년 착공에 들어갔고, 올해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로 완공됐다.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산악안전 ▲호우안전 ▲지진안전 ▲화재안전 ▲생활안전 ▲응급안전 ▲학생안전 ▲키즈안전 등 8개 체험구역을 구축했고, 총 23개의 체험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디지털 정보통신기술과 아날로그 프로그램을 결합해 광주만의 특색 있는 안전체험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체험교육을 통해 학생과 광주시민의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재난상황 발생 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체험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휘국 교육감은 "학생들의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평소 안전체험을 통해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학습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을 방문하는 학생과 시민들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호 기자 2580news@daum.net

광덕고 정성택 학생 '믹스캔디커피' 개발

전국창업발명경진대회 '통합대상' 수상

광주광역시 광덕고 3학년 정성택 학생이 '믹스캔디커피'로 제14회 전국창업발명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인 통합대상(국회의장상)을 30일 수상했다.

광덕고 창업체험동아리 'Spiral Zero'에 소속된 정성택 학생은 믹스커피를 포장지로 저어 먹는 일상적 경험에서 문제의식을 발견했다. 해결 방법 연구하는 과정에서 '믹스캔디커피'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안했다.

'믹스캔디커피'는 기존의 커피믹스와는 다르게 막대 사탕 모양으로 뜨거운 물에막대를 저어 주면 막대 위쪽 원두, 프림, 설탕이 녹아 커피가 완성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내부에는 설탕, 외부에는 원두와 프림을 위치시켜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설탕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특히 생분해 플라스틱을 막대로 사용해 환경적 측면도 고려했다.

정성택 학생은 "특허청의 감수를 거쳐 '믹스캔디커피' 아이디어 특허를 출원했고, 향후 시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며 "대학 진학 후에도 동아리 후배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연구 활동을 지속하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기호 기자 2580news@daum.net

AHA (주)아하정보통신

공기살균정화기

puri TOPIA®

물은 정수기로, 공기는 퓨리토피아!

필터 없이 미세먼지, 살균, VOCs, 악취 등 최고의 제거 성능을 발휘

AHA 신기술 멀티스트
리머 플라즈마 (MSPT)
시스템을 이용하여
빠르고 강력하게 살균

슈퍼박테리아 세균
99.9% 제거

이온클러스터
친환경 방식으로
공간방역 완성

mRNA 바이러스
99.9% 제거

제품 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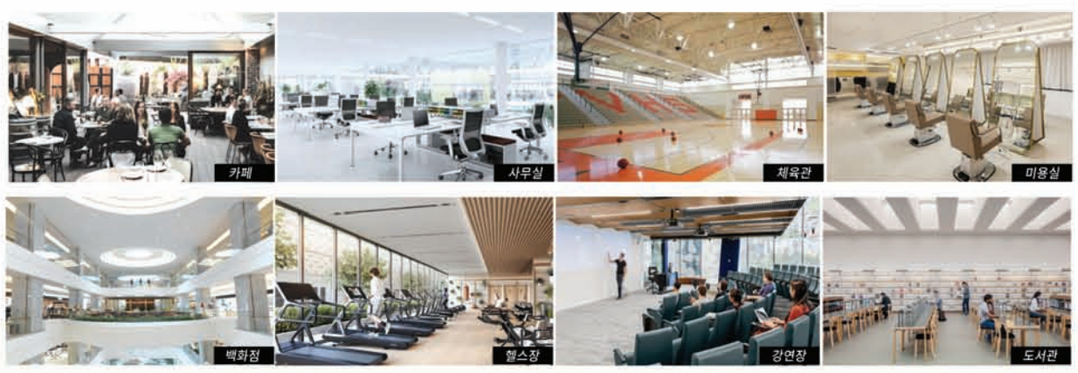
퓨어 화이트 내츄럴 그레이

Dimension

· 15평형
· 30평형
· 50평형
· 90평형
· 150평형

병원, 공연장, 노인시설, 학교, 유치원, 쇼핑몰, 사무실, 체육시설, 카페, 가정등 **다양한 공간~**

사용 공간에 음이온이 분당 2억개까지 발생하여 밀폐된 공간의 냄새를 제거(정화)하고 사람들이 생성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도 정화합니다.



구매문의 : 하나유통 010-3740-3027

코로나 시대 학교스포츠클럽 문화 자리매김

전남교육청, 초·중·고 324명 참가 '비대면 학생스포츠 문화축제' 성료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9월 30일 도내 초·중·고등학생 324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1. 비대면 전남 학생 스포츠 문화축제' 본선대회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비대면 스포츠문화축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존 형식의 대면 접촉 스포츠 클럽대회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신체활동 기회를 늘려 건강과 체력증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 비대면 전남 학생 스포츠 문화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크게 제한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옮겨 시·공간을 초월해 누구나 함께 즐기고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비대면 스포츠 축제의 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스포츠클럽 문화로 자리 잡았다.

개인이 연습하고 촬영해 영상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열린 이번 축제 예선에는 농구 등 14개 종목에 5,589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6개 종목(배구, 육상, 플랭크, 매달리기, 턱걸이, 티볼)의 경우 영상심사 후 종목별 대표만 선발했으며, 8개 종목(농구, 저글링, 제기차기, 축구, 스포츠스태킹, 배드민턴, 줄넘기, 버피텐)은 8강을 선발한 뒤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실시간 쌍방향 대회로 본선을 진행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대회 운영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http://spo.so/jeonnam) 학생 해설아나운서 8명을 공개 선발했으며, 비대면 영상 콘테스트를 통해 33편의 다양한 홍보 영상을 방송 자료로 활용했다.

이번 대회 최종 우승 학생들은 11월 27일 '2021. 비대면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에 전남대표선수로 출전한다.

조영래 체육건강예술과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학생들의 신체활동 기회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활동공간을 옮겨 즐기는 새로운 스포츠 문화가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면서 "전남교육청은 학생 개인 뿐 아니라 가족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축제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호현 기자 2580news@daum.net

장성의 선비정신 계승하자

장성 삼서초, 다양한 체험활동 실시

삼서초등학교(교장 김형옥)에서는 10월 1일 1~2학년 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장성선비정신 계승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장성선비정신계승교육은 '학문으로는 장성을 따라갈 곳이 없다'라는 문불여장성(文不如長城)의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주)에서 장성향교와 연계해 실시하고 있는 학교교육과정 통합지원시스템 프로그램 중 하나로, 2019년 7월 하서 김인후 선생을 기리는 필암서원이 전국의 8개 서원과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서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삼서초등학교는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내 고장 알기 체험', '장성선비정신계승 학년별 퀴즈대회' 등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현장 방문 대신 학교에서 이루어진 이번 체험에서는 여러 가지 전통놀이 체험과 더불어 학생 수준에 맞는 청렴교육, 유생복 착용, 공수인사 배우기, 다도교육 등 다양하고 의미 있는 체험활동이 전개됐다.

체험에 참여한 1학년 박준하 학생은 "유생복을 입으니 제가 꼭 어른이 된 것 같았어요"라고 했으며, 2학년 임라임 학생은 "정직하게 생활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라고 말했다.

김형옥 교장은 "장성선비정신계승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상운 기자 2580news@daum.net

무안 해제초, 전국소년체육대회 태권도 금메달

해제초등학교(교장 천경랑) 태권도부 학생들이 지난 9월 27일, 강원도 태백에서 열린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했다.

본 대회 플라이급에서 11대 9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해제초등학교 태권도부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며 체력 및 겨루기 훈련을 진행하여 꾸준한 기량 향상을 보였다.

각종 대회의 연기 및 취소가 거듭되는 상황 속에서 국가대표선발 예선대회(1차) 겸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개최됐다.

본 대회에 6학년 2명, 5학년 2명의 학생들이 출전했다. 6학년 성유림 학생이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핀급 최민우(6), 최현민(5), 웰터급 윤도원(5) 학생이 출전했다.

금메달을 수상한 성유림(6) 학생은 "열심히 운동해 꼭 국가대표가 되어 세계 선수들과 겨루어 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만철 기자 2580news@daum.net

함평교육지원청, 학생 독서인문교육 강화

중학생 대상 독서 · 토론 · 글쓰기 능력향상 위한 '찾아가는 1일 기자 캠프' 실시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완)은 1일 함평 관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토론·글쓰기 능력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1일 기자 캠프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함평관내 초 2교, 중 1교를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실시되는 독서·토론·글쓰기 능력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1일 기자 캠프는 함평중학교를 시작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현직 기자와 함께 현장취재를 통해 학생들에게 지역의 문제가 무엇이며, 어떤 해결책을 가질 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체험해 보는 소중한 경험의 장으로 구성됐다.

강사로 참여한 현직 기자들은 학생들에게 최근 SNS에서 유통되는 뉴스를 감별할 수 있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 영상 촬영 교육, 기사 작성법 등을 교육했고 학생들은 관내 읍사무소, 파출소, 농협 등 지역사회로 현직 기자들과 직접 현장취재를 나가 1일 기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경험을 했다.

또한 학생들은 인터뷰, 영상, 사진 등 분야별 실습을 통해 자신들이 취재하고 작성한 기사들을 정돈한 최종 기사가 신문 제작이 되고 있는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신문 제작에 직접 참여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김완 함평교육장은 "토론과 글쓰기는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밑바탕이고 학생들이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어 자기 생각을 펼쳐 자연스럽게 토론의 장으로 진행되는 것이 민주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의 독서인문교육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만철 기자 2580news@daum.net

랜선으로 전하는 실시간 학생 모습

화순오성초, 화상 수업 공개 통해 학부모 관심 받아

화순오성초등학교(교장 최연옥)는 9월 29일 1~6학년 전체 11개 학급에서 학생들의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화순오성초는 지난해 팬데믹 상황 이후 학부모에게 온라인 방식으로 학기별 1회 아이들의 수업 장면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수업 공개는 '금쪽같은 교실 수업'을 주제로 교사들은 수업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둔 한편, 학생 중심 수업을 통해 학부모가 자녀의 수업 참여 모습을 관찰하고 교사와 연계 지도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수업 공개는 총 3시간 동안 학년, 학급별로 차이를 두고 진행되었는데, 이는 한 학부모가 여러 자녀의 수업을 모두 참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사들은 ZOOM(온라인화상회의시스템) 프로그램으로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를 초대하고, 학부모들은 가정, 직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자녀의 수업을 볼 수 있었다.

이날 참여한 학부모는 1학년 28명 등 전체 110여명으로, 이는 전체 학생의 과반수 이상의 학부모가 자녀의 수업을 참관한 것이다.

최연옥 교장은 "우리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주에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담임교사와 학부모의 상담과 함께 오늘 온라인 수업 공개는 학생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담임교사는 학부모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바른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조만철 기자 2580news@daum.net

학습경험·예술체험 동시에

고흥평생교육관,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창의적 체험학습

전라남도고흥평생교육관(관장 고재술)은 29일, 30일 초등·중학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제5회 창의적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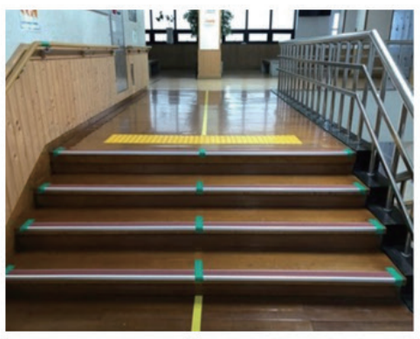
이번 체험학습은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학습경험과 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자기 인형 만들기와 순천만 습지 체험으로 시행했다.

초등 3단계 김해숙 학습자는 "소풍 간다는 설레임에 잠을 설쳤다며, 오랜만에 고흥을 벗어나 도자기 인형도 만들고 친구들과 함께 순천만 야외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다"고 환하게 웃었다.

중학 3단계 김기성 학습자도 "중학과정 졸업을 앞두고 친구, 후배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재술 관장은 "늦깍이 배움이지만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성인문해 학습자들을 위해 교실 밖에서도 다양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배움으로 열어가는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위해 교육관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조만철 기자 2580news@daum.net



취급품목현황

회사명	구분	주요품목
㈜엘림	친환경 바닥재	천연 바닥재, 치장마루재, 시스템 바닥틀, 이중바닥재
㈜유창	금속 마감재	진 금속천정재, 벽천정, 흡음재, 전문 납품 시공
마루 다움	바닥 마루틀	모듈러 시스템 바닥틀 전문 납품, 시공
공간 너머	디자인 벽판넬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벽판넬
블루 보드	황토 패널	실내벽체 마감패널, 벽천장 흡음재, 준불연패널
HS패널	금속제 패널	각종 건축물 외벽패널, 크린룸&내장 패널 라인
㈜에어블탑	계단 논슬립	논슬립, 도막형 바닥재, 미끄럼 방지 포장재
㈜원탑	연결 복도	외부연결본고, 고급스텐차양 전문 납품, 시공
삼진우드	조달우수제품	천연 합성목재, 합성목재데크, 울타리
에바킹	공기살균기	살균99.99%효과 반영구 필터 특허제품

명석산업/월송건설
대표 김 호 현 010-6533-8883
▶본사 :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동로 246(우산동)
T.(062) 251-1400 F.(062) 251-1800
▶지사 :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160-1 빛타워 201호
T.(061) 333-1401 F.(061) 333-1402
E-malie : superkhh@naver.com

김승환 교육감, 6급 이하 공무원과 대화

전북교육청, 진솔한 대화 통해 참여·소통하는 직장문화 조성

김승환 교육감이 6급이하 지방공무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1일 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이 함께하는 '지방공무원 소통·공감데이'를 군산에 위치한 인문학창고 정담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6급이하 공무원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참여·소통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전북교육 정책 이해도를 높이며 현장의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교육정책과 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도내 14개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중 참여를 희망한 지방공무원과 노조대표 등이 함께 했다. 행사는 전북교육정책 이해를 위한 특강,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공연, 김승환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감토크는 키워드 질문과 스티커 질문을 통해 교육감 김승환과 인간 김승환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됐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대입제도 개선 방안, 환경교육의 필요성, 학교자치 실현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김 교육감은 "요즈음에는 전북교육감으로 지내는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행복한 이유는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아도 저마다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나라에게 자존감이 가장 높은 전북교육청 직원 여러분들 앞으로도 모든 일을 당당하게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교육감님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전북교육정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교육청, 일선 학교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우형 기자 jwh@

전북교육청, 2022년 주민참여 제안사업 선정

온라인투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합산… 3개 분야 41개 사업 확정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22년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예비심사를 거친 74개 사업을 대상으로 온라인투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3개 분야 41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온라인투표에는 학생 6,663명, 학부모 6,741명, 교직원 및 주민 1만119명 등 총 2만3,523명이 참여했다.

학생 분야에서는 용산초 '학교 숲에서 마음 씨앗 틔우기' 등 6개 사업이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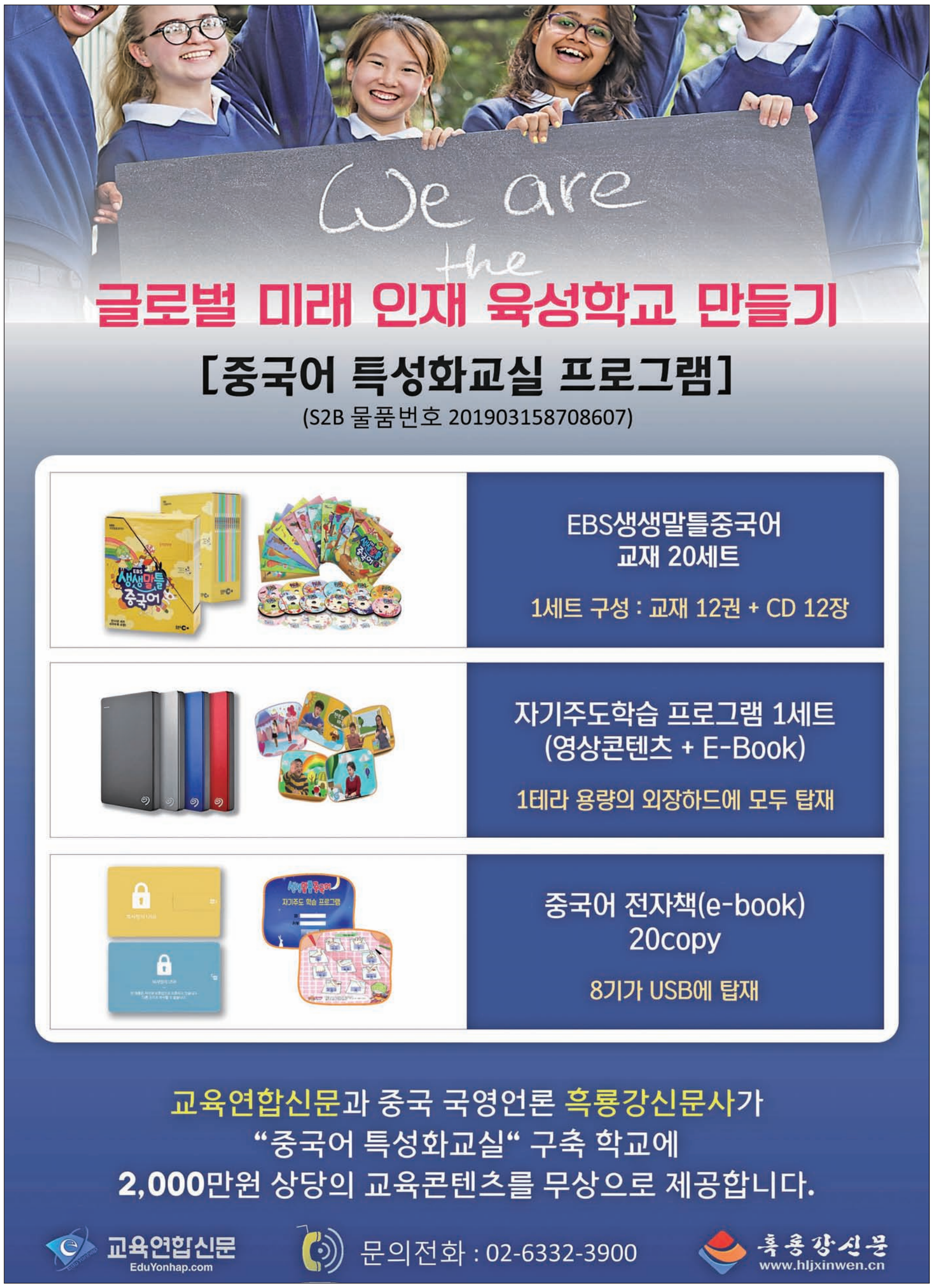
학부모 분야에서는 흥덕초 '공동체가 뭐예요?' 등 12개 사업이 최종 확정됐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및 주민 분야에서는 군산산북중 '한 번 걸어봐~ "교육공동체와 동네 한바퀴"' 등 23개 사업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41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당 1,500만원 이하의 예산이 지원된다.

도교육청은 주민참여 제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 2월 컨설팅과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학교에서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정우형 기자 jwh@



군산당북초, 학생들이 즐기는 예술 교육 실현

제12회 뫼솔전국국악경연대회 초 · 중등부 단체부문 대상

당북초등학교(교장 권영숙)가 지난 9월 24일 동영상대회로 치러진 '제12회 뫼솔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초중등부 단체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본 대회에서는 총 8개의 팀이 참가하였으며, 당북나래 국악관현악단은 '소리놀이 1+1'곡을 멋지게 소화하며 위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당북초는 지난 6월 17일 비대면 동영상대회로 개최한 제8회 곡성통일전국종합예술대전 단체부문에서도 우수상을 차지한 바 있다.

곡성통일전국종합체부문의 경우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진행하는 대회로 당북나래 국악관현악단은 성인팀을 포함한 총 19개팀 중 6위로 우수상의 영광을 안는 등 꾸준히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당북초등 문홍운 교장은 "단순히 기능을 익혀 수많은 대회에서 입상을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즐겁게 예술을 배우고 행복한 삶에 주인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멋진 결실까지 맺게 되어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다"라며 학생이 중심이 되는 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했다.

한편 당북초등학교는 현재 학생들에게 질높은 국악교육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오케스트라 운영학교'를 시작으로 군산교육지원청'군산형 특별공모사업', 전라북도 '전북의 별 인재육성 사업', 군산시 '농어촌 방과후 음악교육'등 각종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속성과 연계성이 있는 교육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예술인 및 예술단체들과 협력하여 학생들 꿈과 끼를 키워나가는 진로지도 및 바람직한 교육공동체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정우형 기자 jwh@

전북교육청, 학교업무 최적화 방안 모색

'학교업무 최적화 정책 및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학교업무 최적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해 학교업무의 교육지원청 이관, 업무 길라잡이 안내, 교직원 의무연수 통합과정 개설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학교업무 최적화 정책 및 아이디어 공모전'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 현장의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들이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모분야는 △정책 및 법령개정 △수업 및 교육활동 개선 △행정업무 개선 △갈등관리 △기타 등 5개 분야로 진행된다. 공모기간은 10월 4~22일까지며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교원·일반직·교육공무직원)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교직원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모전 게시판(https://news.jbe.go.kr/)을 통해 공모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도교육청은 10월 25~29일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들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함께 각각 100만원, 50만원, 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업무 최적화 정책은 교육청의 주요 정책중 하나로 교육행정업무를 간소화·표준화·정보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자치를 활성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업무경감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정우형 기자 jwh@

군산교육문화회관·군산간호대 업무협약

교육 및 보건분야 진로 탐구 · 교육 봉사활동 등 협력

군산교육문화회관(관장 김명희)은 9월 28일 군산간호대학교(총장 강상진)와 교육 및 보건분야 진로 탐구 등 4개 분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산학) 협력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군산교육문화회관과 군산간호대학교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됐다.

협약내용은 △학생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협력 △자료정보서비스 제공 업무를 위한 지원 및 협력 △교육 및 보건 분야 진로 탐구 현장 견학 등 양 기관에 필요한 교육 봉사활동 지원이다.

김명희 관장은 "보건 현장 견학 및 진로체험 등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교육과 보건분야의 지역인재들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우형 기자 jwh@

전주교대 전주부설초,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주 유일의 국립초등학교인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부설초등학교가 2022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내년도 모집 인원은 총 3학급 72명이며, 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18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월 27일 오후 4시까지다. 원서접수는 본교 교무실을 방문해 직접 작성만 가능하다.

선발은 추첨을 통해 진행되며 추첨일은 오는 11월 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본교 시청각실에서 진행된다.

추첨 당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을 동반하지 않고 보호자 1명만 참석해야 하고, 불참자는 추첨 자격을 상실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부설초등학교(284-3198) 홈페이지(http://jjbs.es.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우형 기자 jwh@

새로운 경남 미래교육 대응 힘 모은다

경남교육청-경남도 교육행정협의회, 학교급식비 2.5% 인상 등 5개 공동사업 적극 추진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과 경상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는 29일 경남교육청 중회의실에서 2021년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미래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교육현안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기관별로 추진하는 교육사업의 협치·조정을 통해 도민에게 공백 없는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있다.

이번 교육행정협의회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양 기관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과제 해결,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통합교육행정체제를 강화하고 교육현안 해결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최근 식품비 물가상승률과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내년도 학교급식비 단가를 2.5% 인상한다. 이번 합의를 통해 친환경·Non GMO(유전자 조작이 없는 농산물 식재료)·국내산 식재료 구매 확대로 학교급식의 질을 높여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재원분담은 코로나19 등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교육청·도·시군이 각각 70:6:24 비율로 분담한다.

양 기관은 행복교육지구 운영, 특성화고 지원,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학교급식환경 개선 등 22개 사업을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한다.

통합교육추진단 출범으로 시행된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학교 공간혁신 모델 구축, 학습카페·홈베이스 구축, 미래교육 모델학교 구축, 시군 교육협력사업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5대 공동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경남 로봇랜드 테마파크를 활용하여 유치원, 초·중·고등학생들의 로봇체험교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진로체험과 현장체험처 이용을 확대하고, 내년 4월 열리는 하동세계차엑스포 등 지역사회에 기반한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경남에서 키운 인재는 지역기업에 취업하고 정주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낸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과 연계해 고교-기업 간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 진로교육 관련 행사에 경남-울산 공유대학(USG) 홍보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청과 경남도는 많은 분야에서 각별하게 협력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넘어 전체 도민들에게 큰 희망을 준 성과들을 만들어냈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새로운 경남의 미래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2년간 도와 교육청의 통합교육행정체제를 통해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었다"며 "경남의 미래, 아이의 미래를 위해 통합교육추진단을 중심으로 더욱 더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기관은 지난 2019년 10월,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하나로 통합하는 차원의 '경상남도 통합교육추진단'을 출범하고, 교육청에서 교육전문직과 일반직 공무원 등 5명을 파견하여 협력모델 발굴과 공동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직업계고 창업교육 고민 해결

경남교육청, 창업동아리 지도교사 역량강화 직무연수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9월 30일~10월 1일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직업계고 창업동아리 지도교사와 관심있는 교원 42명을 대상으로 '창업동아리 지도교사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직무연수는 기업가정신 교육에 권위를 가진 노성여 동명대학교 교수 등 현직 교수와 교사를 강사로 위촉해 '새로운 모색과 창조'를 주제로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사례와 활동 중심으로 이틀에 걸쳐 15시간 진행됐다.

경남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미래산업 중심의 창업·창직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과 교사들의 지도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거제여상의 '천년미인' 등 16개교 32개 학생창업동아리에 팀당 400만 원 내외의 예산 지원으로 창업교육의 출발점이 되었다. 또 동아리 운영 결과 발표회와 교사 간담회를 통해 창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올해는 18개교에서 42개 학생창업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다. 김해건설공고와 창원기계공고는 학과별로 전공 창업동아리를 조직하여 5~6개씩 활동하고 있다. 특히, 김해건설공고 '무한질주' 동아리는 활발한 활동으로 '학생 창업 유망팀 300' 대회에 최종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한 교사는 "평소 지역의 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예비 창업자 교육과 창업 종목 탐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가 체험 위주의 분임활동과 현장에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창업동아리 지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정희 진로교육과장은 "창업교육은 미래산업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교육과정이며, 창업교육의 대한 인식 제고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우수 기관 선정

경남교육청, 2년 연속 의무구매 초과달성… 창원 · 양산지원청은 유공자 표창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021년 보건복지부 주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창원교육지원청과 양산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는 우선구매 유공자로 선정됐다.

이는 경남교육청이 그동안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적극 나선 결과다.

우수기관 선정은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기여도가 큰 기관(개인)과 우선구매 비율 또는 구매 금액 상위 기관(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경남교육청은 우선구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 4개 장애인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우선구매 실적을 성과지표에 반영했다.

2019년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회를 여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9년 1.26%, 2020년 1.91%로 2년 연속 의무구매 비율(1%)을 초과 달성했다.

경남교육청은 우선구매 금액 기준으로 시도교육청 단위 2년 연속 전국 3등, 창원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 단위 2년 연속 전국 1위에 올랐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우선구매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남 장애인 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기관(학교)의 총 구매액이 감소하는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지난해 경남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2019년 대비 12억 원이 증가한 102억 원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이뤄내 공공기관의 모범이 되었다.

특히 올 9월부터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라 장애인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먼저 알아보는 공공구매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전반적인 구매 실적 증대를 꾀하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구매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생님의 든든한 동반자,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경남교육청, 다양한 '교원 심리 · 정서 치유 프로그램' 운영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교육활동 침해와 장기간 방역업무,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소진된 교원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원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의 교원치유지원센터인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이하 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외에 장기간 방역 업무 스트레스 호소 교원, 학생의 자살 및 자해 경험 교원, 코로나19 확진·완치과정에서의 우울·불안 경험 교원 등을 대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센터는 소속 전문상담사의 심리상담 외에도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상담기관과 심리치료병원 등을 위촉하여 촘촘한 외부 연계망을 확충하고 교사 1인당 1백만 원 이내의 연계 상담 비용을 지원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올해는 교원 힐링 연수를 연 4회에서 8회로 확대하여 더 많은 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별 접근성 및 특성을 고려한 쉼과 회복·치유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 발생과 직무 소진 등으로 심리·정서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들을 위해 하반기에 '교원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관계회복 집중상담, 치유성장 집단상담, 스트레스 자가관리 앱 활용 등이 있다.

경남교육청, '어린이 재난안전카드' 제작·보급

재난 발생시 대처 능력 향상… 지진 · 화재 등 유형별 행동요령 담아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재난 발생 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어린이 재난안전카드'를 제작하여 초등학교 1학년 학생 3만여 명에게 보급한다.

'어린이 재난안전카드'는 지난 3~6월 전담팀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 형태와 삽화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디자인과 색채에 심혈을 기울였다. 지진·화재·교통·물놀이안전 등 4개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을 재미있게 삽화로 구성하였고, 아이들이 휴대하면서 언제든지 읽어볼 수 있도록 카드 형태로 만들었다.

총 15장으로 앞면에는 재난 대응 행동요령 삽화를, 뒷면에는 설명을 넣었다.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카드와 묶음링 등 구성 재질에 대해 안전기준 시험평가를 거쳤으며, 검수단이 제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물품 규격과 제조 상태를 면밀히 확인했다.

허재영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학생들의 재난 대응 능력과 안전 의식이 한층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WWW.에티켓통.COM
에티켓통 | ETIQUETTETONG
에 티 켓 통
화장실문화 개선 및 여성의 프라이버시 존중을 위해... S2B 학교장터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 | FEMININE HYGIENE BINS
[특허 받은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
에티켓통XV-ET101은 ? 생리대 수거장치로 특허받은 제품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으로 폐생리대를 은나노항균봉투에 담아 은나노수거함에 처리하여 분리, 수거 할 수 있는 항균과 탈취가 되는 제품입니다.
–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 피스로 고정하기에 떨어지지 않고 옮겨 달 수 있습니다.
– 매일 수거 봉투를 갈아 끼우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 은나노 항균위생봉투를 사용해 항균 및 탈취가 가능한 위생제품.
안전행정부·교육부 : 학교 및 공중화장실 시설관리 개선 공문 발송
•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 –1329 (2017.04.14)
– 공중화장실 관리인 인권침해 방지 및 시설관리 개선 협조 요청
• 잘못된 관습에서 이뤄지고 있는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의 휴지통은 비치하지 않을 것.
– 단, 여성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을 별도 비치.
• 휴지통에 용변사용 휴지를 버림으로써 악취 및 실내 공기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음.
– 과거와 달리 화장실 휴지는 물에 잘 분해되어 변기에 버려도 무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18호 일부개정 2017.05.08 / 시행일 2018.01.01]
제7조 3항
•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어야 한다.
항균·탈취·절수
특허청 [특허 제 10-1120869호]
[디자인등록 제 30-0573670호]
"은나노가 함유된 항균과 탈취가 되는 여성위생용품 수거함 에티켓통"
에티켓통 특성
▣ 에티켓통은 은나노가 함유된 케이스와 봉투로 제작되어 향균과 탈취가 되는 제품입니다.
▣ 에티켓통은 하부 보관통이 분리되기에 내용물을 버리기 쉽고, 물로 세척이 용이 합니다.
▣ 에티켓통은 나사로 고정 되기에 시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고, 화장실 리모델링시 철거 및 이동하여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에티켓통은 내오염성 실험과 냉열반복시험, 저온낙하시험 등에 합격된 발명 특허제품입니다.
▣ 에티켓통은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을 흉내 낸 단순 쓰레기통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입니다.
S2B 학교장터 | 구매방법
www.s2b.kr 접속 ▶ 물품목록창에 에티켓통이나 여성위생용품수거함 입력 ▶ 제품 및 수량 선택
모 델 명 | 금 액 | S2B 학교장터 물품식별번호
XV – ET101(항균위생봉투 1롤 포함) | 66,000원 | 201707016278840
항균위생봉투 (10롤 X 400매) 1BOX | 44,000원 | 201707016278964
항균위생봉투 (30롤 X 400매) 1BOX | 121,000원 | 201707016278948
• 은나노 항균위생봉투 1롤(400매)
(설치 및 VAT 포함)
생리대 수거장치로 특허받은 제품 : 에티 Q (주)가야지앤이 / www.에티켓통.com ☎ 02)866-8921, 055)242-8921

소통하고 공감하는 노옥희 울산교육감

제74회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 행사 참여해 학생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 가져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9월 25일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제74회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자치단과 학생문화예술동아리 학생 20여 명이 참석해 교육감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개관한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은 학생자차시설, 공연·전시시설, 자유이용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울산교육청 산하의 문화예술교육기관으로 학생자치단, 학생문화예술동아리, 학생예술단, 악기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며 울산지역 학생들에게 다채롭고 풍부한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생자치단인 '청바지기획단'(청소년들이 바라는 뜻을 이루는 기획단)은 기획운영, 학생홍보, 학생봉사, 공연전시, 동아리연합분과로 나뉘어 분과별 활동과 각종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노동인권 교육 강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변화 및 장점, 코로나 상황에서의 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의견도 전달했다.

이에 노옥희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노동인권교육'을 교육감 공약으로 정하고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은 15차시의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성화고 교사 대상으로도 12시간의 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교당 1명의 노무사를 배정, 현장실습 전 학생 사전교육, 현장실습 시 노동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계고 학생을 위해서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인'학생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에서 입법예고 중이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노동인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학생 본인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게 함으로써 교육 과정 안에서 진로 고민을 할 수 있게 되고,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이나 다른 분야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가 수용 가능한 구조로 학교 현장이 변화되어 교육의 다양성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 활성화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자발적이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덕환 기자 mdh@

가족 친화력 높여 학생 정서 회복 돕는다

울산강북교육지원청, 너나들이 인성교육 역사탐방

울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원기)은 지난달 25일 강북 초등학생 가족(39명)을 대상으로 너나들이 인성교육 역사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가족 단위 너나들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가족의 친화력을 높여 학생의 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바른 인성을 함양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올해는 메이커교육, 문화체험, 역사탐방, 생태체험을 주제로 운영한다.

이번 탐방 장소인 동헌은 울산의 수령이 공무를 처리하던 중심 건물로 1997년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고 내아는 수령이 살았던 살림집이다.

태화루는 중구 태화동에 위치한 누각으로 임진왜란 직전이나 전란으로 멸실되었으나 2014년에 복원 준공되었다.

태화강 국가 정원은 생태정원, 대나무정원, 계절정원 등이 있어 생태체험 공간으로 각광 받고 있다.

역사탐방에 참가한 가족들은 동헌 및 내아, 태화루에서 문화 해설을 듣고 태화강 국가정원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가족 간에 정담을 나누고 자연도 체험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너나들이 역사탐방은 참여한 가족들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가족애를 함께 체험하는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기에 그 의미가 더 크게 와닿을 것이다. 10월에도 망해사, 처용암, 대곡박물관 등의 탐방을 계획하고 있으니 교육 가족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덕환 기자 mdh@

울산교육청 7년 연속 학업중단율 '전국 최저'

교육부, 2020학년도 학업중단학생 조사 결과 발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 효과

올해도 울산 지역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020학년도 전국 학업중단 학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울산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7년 연속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낮은 학업 중단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체 학생 대비 학업중단율 0.35%와 부적응 사유 학업중단율 0.22%로 전국 평균 학업중단율(0.60%)과 부적응 사유 학업중단율(0.38%)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최근 3년간 학업 중단 학생 수는 18년 802명, 19년 735명, 20년 455명으로 매년 지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의 상담과 지원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과 위탁교육 기관의 헌신이 7년 연속 학업 중단율 전국 최저라는 성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교 안팎으로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학교 내 프로그램으로 △학교 내 대안교실(30교) △집중지원학교(특성화고 7교) △학업중단숙려제(전학교)를 운영해, 학교 내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지원했다. 그 결과 학업을 중단하겠다고 마음먹은 학생이 학업중단숙려제 실시 후 53%가 학업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프로그램으로 △대안교육·진로직업중심·가정형위(Wee) 등 위탁교육운영(17기관) △학업중단예방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6기관) 으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기관에서 교육과 상담이 맞춤형으로 이루어져 학업중단 예방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시교육청 위탁학교 중 한 곳인 울산시민자유학교는 교육부 우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교육부 지원금으로 추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진로직업 대안교육을 위해 컴퓨터, 요리, 댄스, 실용음악 등 15개 기관을 발굴해 체험 중심의 진로직업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꿈키움멘토단을 꿈이룸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꿈키움멘토단은 은둔형 외톨이처럼 집 밖으로 나오기를 꺼리거나 무기력한 학생을 찾아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다.

시교육청 관계자는"울산 학생의 학업중단율이 7년 연속 전국 최저라는 성과는 울산교육 가족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학교와 교육청은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다각도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덕환 기자 mdh@

울산교육청, 교실 온도 1도 낮춘다

생태환경교육 일환 추진… 35학급 100일 챌린지 참여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공동의 미래를 준비하는 생태환경교육의 하나로 '교실 온도 1도 낮추기 100일 챌린지(참여 잇기)'에 들어간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교실 온도 1도 낮추기 실천과제를 이행할 초·중·고교 30학급 내외를 선착순으로 공모했다. 공모에 121학급이 신청해 생태환경과 기후환경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급 가운데 최종 35학급을 선정하고, 학급에는 생태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된 실천메뉴 운영에 필요한 학급운영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학급은 '교실 온도 1도 낮추기 100일 챌린지'를 슬로건으로 학급 구성원의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실천과제 메뉴를 선택해 오는 12월까지 100일간 가정과 학교로 확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좋은 삶을 위한 과제를 수행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6월 중·고교생, 학부모, 교원,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생태·기후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교실 온도 1도 낮추기 100일 챌린지를 위한 학급 실천과제를 받았다. 토론회 참석자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결과 최종 실천과제 메뉴 25가지를 선정했다.

반려식물 기르기, 에너지 절약 실천, 분리수거, 탄소배출량 줄이기, 친환경 공책 만들기, 모둠별 화분 관리, 환경도서 돌려읽기, 나만의 환경그림책 제작, 에너지 저축통장 운영, 환경실천 한줄쓰기, 채식 요리활동, 학생환경활동가 양성 등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12월 참여학급을 대상으로 성과나눔회를 열고 실천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문덕환 기자 mdh@

아빠와 함께 하는 신나는 놀이

울산유아교육진흥원, 실질적 도움되는 학부모교육

울산유아교육진흥원(원장 김정자)은 지난달 25일 아빠와 함께 놀이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자 '아빠와 함께 하는 신나는 놀이'를 실시했다.

전국놀이교사모임 가위바위보의 회장 심창경 강사를 초빙해 아빠들에게 놀이의 중요성과 더불어 자녀들의 눈높이로 놀아주는 방법에 대해 알려줬다. 터널통과, 아빠 동네 한바퀴 등의 놀이 활동을 직접 해보며 아빠와 유아들이 마음을 나누고 신나게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유아는 "아빠와 함께 몸놀이도 하고, 생각마을·바깥마을 체험활동도 해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매일 매일 아빠와 함께 오늘처럼 신나게 놀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교육에 참여한 학부모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가정에서 어떻게 놀아야 할지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이 배웠다"며 "우리 아이와 함께 많이 웃었던 선물 같은 시간이었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부모교육과 체험활동에 대해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문덕환 기자 mdh@

전국 최초 발명체험교육관 건립 '착착'

경북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18개 중점 과제 추진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전국 최초로 구축되는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이하 발명체험교육관)'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전문발명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발명체험교육관은 창의·융합형 발명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허청 공모사업으로 경주시 황남동 황리단길 인근에 위치한 옛 황남초등학교 부지에 구축된다.

2020년 12월 리모델링 건축공사를 시작으로 조작중심의 특화된 발명전시체험물 제작·설치, 체험형 미래로봇체험물 구축, 황리단길 어울림광장 및 주차장 조성 등 여러 시설사업이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발명체험교육관은 △체험형 창의발명교육과정 △발명지식전문교육과정 개발·운영 △찾아가는 발명교육 △미래발명인재 양성 프로젝트 운영 △교원의 발명교육 지도역량 강화 △테마가 있는 발명콘서트 △지역민 함께하는 생활 속 발명문화 확산 등 18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발명체험교육관은 대한민국 발명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발명교육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Hands-On 중심 특화된 전시체험교육, 발명교육 강사 인력 양성, 발명교육 정책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발명전문교육기관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최한구 기자 chg@

경북교육청, 학교 인터넷속도 2배 더 빨라진다

전국서 가장 먼저 4단계 스쿨넷서비스 전환… 미래 교육 변화 선제적 대처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전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인터넷을 제공하는 '4단계 스쿨넷서비스'로 전환을 시작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비롯한 온라인 학습이 본격화됨에 따라 교실 무선망 구축, 교원 1인 1노트북 지원, 1학생 1스마트기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터넷 이용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메타버스, 클라우드와 같은 새로운 정보화 기술의 등장으로 앞으로도 이용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교 무선망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노트북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2016년에 설계돼 운영중인 인터넷 제공 환경은 이용량의 임계치를 초과한 상태다.

이에 금번에 구성된 집선망은 기존 4배, 학교의 전용회선망은 기존 2배 향상된 통신망 환경을 구축해 학생과 교사들이 원활하게 교수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스쿨넷서비스'는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안정된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 전용회선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은 경북교육청이 주관하며, 사업자 선정은 5년 주기이다.

이번 4단계 스쿨넷서비스는 2026년 9월까지 총 240억원의 통신요금으로 1,010개 회선을 운영하고, 통신요금도 경북교육청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과 예산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경북교육청이 가장 먼저 4단계 스쿨넷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미 지난 9월 16일에 집선망을 고도화된 새로운 환경으로 전환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정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스쿨넷서비스는 교육 활동 및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 인프라이므로 안정되고 빠른 정보통신 환경을 만들어 미래 교육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한구 기자 chg@

학교운동부지도자 무기계약직 전환

경북교육청, 255명 중 희망자 대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달 30일 301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학교운동부지도자 무기계약직 전환 심의 위원회를 열고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 초부터 8월 말까지 6차에 걸친 T/F팀 협의회를 개최해 학교운동부지도자 무기계약직 T/F팀 운영결과 보고서를 수립하고 전체 위원 5명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심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 협의를 한 결과 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 소속 지도자 255명 중 희망자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8번째 학교운동부지도자 무기계약직 전환 결정이다.

이번 학교운동부지도자 무기계약직 전환 결정은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전국대회에서 이룬 높은 성과와 노력에 부응하고 앞으로 더 큰 실적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집중적인 훈련지도로 학생 선수의 경기력이 더욱 향상되어 우수한 선수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한구 기자 chg@

김천교육지원청, 예술적 감각 일깨우다

4개 초등학교 70여명 학생 대상 도예체험활동 진행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삼봉)은 9월 27일~ 29일 동안 김천 관내 4개 초등학교 7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공방과 연계하여 도예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은 김천교육지원청 학생문화예술센터 기획으로 도예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로운 자기표현으로 창의력을 키우고 학생문화예술센터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자 김천교육지원청에서 주최했다.

체험에 참석한 한 학생은 "생각한 것처럼 쉽게 되지는 않았지만 물레를 통해 그릇을 만든 후 나만의 접시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고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감천초등학교 인솔교사는 학생들 스스로 주제를 생각하고 직접 그리고 도예작업을 통해 하나의 그릇을 완성해 봄으로써 학생들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더불어 성취감도 고취시킬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박삼봉 교육장은 "이번 체험를 통하여 학교 공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의 의미 있는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감각을 일깨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김진희 기자 kjh@

경북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연수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달 30일 안동교육지원청 학교교육지원센터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11개 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1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연수'를 가졌다.

이번 연수는 우수 교육프로그램 발표와 위탁운영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과 기관별 정보 공유, 제도 개선 제안 및 현장 여론 경청 등을 통해 대안교육 내실화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교육청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하반기 중 위탁교육기관 현장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주원영 학생생활과장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적극 지원해 위기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한구 기자 chg@

상주교육지원청, 행복한 학교 문화

우석여고 · 성신여중 교문 부근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윤)은 9월 30일 우석여자고등학교와 성신여자중학교 교문 부근 등굣길에서 생명 존중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상주교육지원청 김종윤 교육장 이하 소속직원을 비롯해 우석여자고등학교와 성신여자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 상주Wee센터 직원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2학기 초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생명사랑 교육활동 주간을 맞이하여 학교폭력 및 성폭력과 자살을 예방하는 다양한 표어를 사용해 학생과 교직원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서로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친구 간에 사랑하자는 뜻의 친숙한 경상도 사투리를 표현한 '친구야 사랑한데이~'라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슬로건을 사용해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종윤 교육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 스스로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공감함으로써 긍정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행복한 학교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kjh@

경북교육청, 중·고 12교에 학부모 회의실 구축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12교에 학부모 회의실을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초·중·고·특수학교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9월에 사업을 신청한 모든 학교에 예산을 지원했다.

지원금액은 교당 2천 5백만 원 정도이며, 총사업비는 2억 9,500만 원이다.

대상 학교에서는 학부모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2월까지 리모델링 공사와 비품 구입을 완료해 3월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회 전용 회의실 조성으로 학부모 회의뿐 아니라 학부모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물품 보관 장소로도 활용하고, 교직원 회의실, 학생 회의실 등 다용도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최한구 기자 chg@

연수원전경

교원들이 행복한 전남교원연수원 만든다

전남교육연수원 탐방

나영숙 원장

1995년 9월 1일 개원한 전라남도교육연수원은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연수기관들이 참여하는 전남교육연수기관협의회를 바탕으로 전남형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출발했다.

전라남도교육연수원·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전라남도국제교육원·전남도유아교육진흥원이 참여하는 '전남교육연수기관협의회'는 교원 생애단계에 맞는 맞춤형 연수와 현장중심 교원연수를 위해 4개 주요 과제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교원연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교육연수기관협의회는 장석웅 교육감의 지시로 2019년 수립한 교원연수 중심 직속기관 혁신 방안 중 핵심과제다. 교원연수기관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현장교육력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2020년 정책기획과와 4개 기관 간 세부협의를 통해 기본 운영방안을 수립하였다.

2021년 상반기에 3차례의 교육감 보고 및 협의, 7차례의 기관장 및 실무자협의회, 4차례의 현장의견수렴을 통해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21년 9월 현재는 2022년 실질적인 현장적용을 위해 세부운영계획 및 예산안 등을 수립하고 있다.

전남교육연수기관협의회는 교육자치 시대와 미래교육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전남교원연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시작하였다.

학교현장 교원연수 현황과 각 기관들 운영평가를 통해 주요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1개의 비전과 2개의 목표 4개 주요 과제와 추진전략을 담은 전남교원연수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2019년 실시한 설문결과(N=1,687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현장교원들은 원격연수(22.8%), 학교안 전문적학습공동체(21.5%) 등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연수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며, 학교현장의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현장에 필요한 연수과정 개발(47%), 현장 적용을 위한 실행연수 확대(21%), 생애단계에 맞는 연수지원(15.2%) 등 실제 학교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연수 순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이 행복한 전남형 미래교육 활성화 도모
4대 주요과제·추진전략 수립… 대대적 연수 혁신

2020년 실시한 설문에서는(N=1,369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입직기 교사는 배움중심수업(57.1%), 성장기 교사는 전학공 운영(48.4%), 발전기 교사는 학습공동체리더십(37.3%), 전문직 및 관리자는 미래교육과 리더십 연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교육연수원에 바라는 사항으로 2020년에도 현장적용도 제고(75%)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남교육연수기관협의회는 전남교원연수 현황과 현장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현장 중심 교원연수를 활성화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원 생애단계에 맞는 맞춤형 연수로 교원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현장교육실천과 교원연수를 연계하여 학교 교육력 제고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실천하고자 4개 주요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생애단계별 교원연수 운영

전남 모든 교원이 전남교육에 입직하는 순간부터 퇴직할 때까지 교직생애단계에 필요로 하는 연수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교직 경력을 4단계로(입직기 1~3년, 성장기 4~15년, 발전기 16~25년, 원숙기 26년~) 구분하여 단계에 따른 필수연수(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권장연수)와 선택연수(기관과 현장이 공동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율연수)를 운영한다.

많은 교원이 생애단계별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원주도 연수를 확대하고, (교과)교육연구회가 교육연수원의 직무연수와 자격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생애단계 연수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연수에 적극 참여하는 교원들에게 교원들이 선호하는 직무연수에 우선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교원 자격연수 혁신

미래교육 확산과 교육자치 시대 도래, 교장자격연수 시·도교육청 이관에 따라 미래지향적 전남교원 자격연수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자격연수의 현장적용도를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연수내용과 방법을 적용하며 생애단계 연수 및 학습공동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자기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위탁연수를 최소화 하고 전남 연수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연수를 확대한다.

2022년부터 유·초·중등 교(원)장 자격연수, 유·초·중등 교(원)감 자격연수는 교육연수원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진흥원이 협력 운영한다. 유·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교육연수원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진흥원이 협력 운영하고,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국어, 수학, 역사과는 교육연수원이 영어과는 교육연수원과 국제교육원이 협력 운영한다. 그 외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위탁운영(대학, 연수기관 등) 하되 직접 운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 현장 맞춤형 직무연수 활성화

전남교원들의 일상적 학습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직무연수와 연계하여 '교육실천이 곧 연수가 되고 연수가 곧 실천으로 이어지는' 현장적용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첫째,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희망하는 학교에 한 해 신청을 받아 직무연수로 인정한다.

둘째, 현장기획형 직무연수를 프로젝트형 현장연수(교원 주도 연수), (교과)교육연구회 직무연수, 교육지원청 직무연수, 도교육청 직무연수로 체계화하여 질 높게 지원한다.

셋째, 현장연수를 활성화 하는 동시에 연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장 연수를 지원하는 통합지원단(전문적학습공동체 리더, 생애단계 강사단, 교육과정과 수업 강사단, 민주시민 강사단 등) 직무연수를 2022년 겨울방학 중 운영한다.

통합지원단 직무연수를 통해 발굴육성된 지역(영역)별 지원단은 전문적학습공동체와 현장맞춤형 직무연수 등 현장연수를 다양하게 지원하게 된다. 또한, 영역별 연수교육과정을 모듈형으로 개발하여 지원한다.

넷째, 전남교원연수 교수요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직무연수를 전남교육연수원이 개설하여 9월부터 11월 까지 운영한다. 이 연수에서는 전남 교원들을 위한 2022년 자격연수 및 주요 직무연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강사단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 전남교육연수 플랫폼 확대

전남교원연수를 질 높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남교육연수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전남교원연수기본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전남 교원연수를 총괄 기획·조정한다.

학교현장의 연수피로도를 줄이고 연수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책(전달)직무연수를 원격연수로 지원하고, 전남 모든 교원들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연수는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개설하여 현장교원들의 연수이수를 지원하고 만족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지원단(강사단)과 연수공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전남 교원연수의 지리적 약점을 보완하고 지역(권역)별 연수체계를 구축한다.

전남교원연수의 통합적 계획과 체계적 운영으로 교원 연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교원들의 생애단계에 따른 현장 맞춤형 연수와 미래지향적 연수운영은 전남교육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전남아이들에게 질 높은 미래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